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2021 가을·겨울호

WALDORF
100 | LEARN
TO CHANGE
THE WORLD

실천하는 인지학

발도르프 교육예술





겨울 계절탁자 - 수공예 연구원 한은숙 작

42

겨울의 이 어둠 속에서

자기 힘의 현시는

영혼의 강한 총동입니다.

그 총동은 칠흑 속으로 힘의 현시를 이끌며

가슴의 온기를 통해 감각의 현시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 인지학 영혼달력 中 일월 셋째 주(1913.1.19~25)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인지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응용 분야들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자 1999년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2000년 3월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실천 분야 가운데 특히 우리 사회의 교육 현안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발도르프 교육 예술을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지학센터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21세기 혁신교육 모델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영유아 및 학교 현장, 방과후 돌봄교실, 혁신학교 등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설로 2011년 설립된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은 발도르프교육 전문 기관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보육과 교육, 자녀 교육을 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에게 다양한 강좌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한국인지학출판사**는 슈타이너 전집과 발도르프 기본교육서 번역이 절실하다는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긴요한 자료들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7년에 설립된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에서는 새로운 동작예술인 오이리트미를 통해 발도르프 교육예술 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차

05 2021 여름 교사 아카데미

- 06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 19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 28 발도르프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 33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35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41 응용인지학의 현장 소식

- 42 꿈꾸는어린이집
- 44 낙원어린이집
- 47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 50 별꽃씨어린이집
- 53 푸른숲발도르프학교
- 55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
- 58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63 빛나는 2021, 여럿이 함께

- 64 내부강좌 이모저모
- 70 발도르프 교육예술 영상
- 72 서초아이발달센터 위탁 운영 소식
- 74 신간소개
- 77 후원안내
- 81 후원신청서
- 83 광고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실천하는 인지학
발도르프 교육예술

2021 가을 · 겨울호

발행인 이정희

편집인 이창미

편집팀 김민경, 송지윤, 장주현, 최은영, 한교숙

디자인 김다운

표지그림 안미순

도움주신 분들 김세정, 김태영, 백미경, 여상훈, 유병현, 한은숙

제작 싱크스마트

발행일 2021년 12월 08일

발행처 (사)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0409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6층

전화 02-832-0523

팩스 02-832-0526

이메일 anthroposophy@hanmail.net

홈페이지 <http://steinercenter.org>

2021 여름 교사 아카데미

- 06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 19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 28 발도르프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 33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2003년 여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여름에는 10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유아(0-7세)의 본질과 발달을 새롭게 이해하고 특수 아동을 포함한 유아기의 발달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사의 현장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 과정입니다. 총 6학기로 진행되는 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필수 학점을 포함해 900학점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영유아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1년 여름 아카데미는 10기의 네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21. 7. 30(금) ~ 8. 6(금) 10:00-18:40

장소 온라인 (Zoom Live 강의)

교육이론

다니엘 모로 / 통역 이정희

색채론

교수방법론 I

비르기트 크로머 / 통역 이정희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

교수방법론 II

마리 루이제 콤파니 / 통역 이정희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의 관찰 태도와 지원

수공예

한은숙

큰 인형 만들기

예술

손석심

밀랍 크레용 그리기

이윤옥

킨더라이어 연주법과 활용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

비르기트 크로머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슈타이너는 언어 습득과 발달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특히 움직임의 발달과 연결하여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아이가 만 2세무렵이 되어야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언어 발달이 영아기의 움직임 발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가 손을 입에 넣고 빠는 등의 행동이 말하기의 전제가 됩니다. 아이들은 조음기관을 발달시켜야 발화가 시작됩니다. 영아기의 이런 발달 과정이 이루어져야 사람은 ‘말’ 속에 ‘생각’을 담아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말하기의 발달 과정을 인지학적인 발도르프 교육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부모가 가정에서도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각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적과 같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점에 아이에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생각을 따라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그 이전 단계까지 감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

리가 하는 ‘너’라는 말은 아이 입장에서 ‘나’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말을 알아듣고는 어느 순간에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

인간학적 배경에서 걷기와 생각하기, 걷기와 말하기를 간략하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문인 장 파울은 《레바나, 교육서》를 집필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책에 담긴 소중한 내용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육자에게 매우 적중하는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그냥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에 ‘본보기’와 ‘모방’이라는 교육의 핵심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듯이, ‘교육’을 한다는 것,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교육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가장 간단한 교육 방법은 나 자신이 기쁘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행동하면, 아이는 그 행동



Es hat keinen Sinn die Kinder zu erziehen,
sie machen einem doch alles nach.

Jean Paul

을 그대로 배웁니다. 내적 '기쁨'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행동하면, 아이는 나의 기쁜 마음조차 배우게 됩니다. [...]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의 아이들은 언어 습득에서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 언어'라고 부르는 웅알이입니다. 말하기의 첫 단계로 아기는 입술, 혀, 입천장의 단단한 부분을 활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자음에 모음을 붙여서 소리내기를 해봅니다. '빠빠빠, 트트, 그크크' 등 여러 소리를 냅니다. [...]

'말하기'에는 '듣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후 8개월, 9개월, 10개월의 성장기는 말하기의 준비 단계이며, 이때 아이들의 움직임 충분히 발달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사물을 손으로 잡거나 입으로 빨고 아무 소리라도 냅니다. 게다가 뒤집기, 배밀이, 기어가기 등 신체적 움직임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생각하기'가 일어납니다. 결국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는 의지와 감정의 발달과도 연결됩니다. [...]

아이의 '생각하기' 역시 모방을 통해 일어납니다. 만 3세무렵 '나'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생각하기'의 모방 단계입니다. 아이들은 문장을 이상하게 돌려서 말하고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이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른들이 아이가 하는 '이상한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아이가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어른이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거나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런 지적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담아 표현하는 것을 침범하는 것이니까요.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두고 되묻지 말고, 어른 자신이 잘 새겨들 수 있도록 귀 기울여야 합니다.

[...]

아기는 한 단어로 문장 전체를 표현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마, 마마, 마마, 이런 소리는 어린 아기가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질문하는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다가 언어의 멜로디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듣기에 언어의 멜로디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언어적 멜로디를 음악처럼 모방하는 것입니다. [...]

교육자로서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언어 습득은 '언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살아있는 언어, 즉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모방하며 배우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아이가 만 2.5세무렵에 갑자기 '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모방

이 아닙니다. 모국어 습득에서 이 시점부터는 아이의 언어 사용이 풍부해 집니다. 즉, '너'라는 것이 '나'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게 되면서, 언어 습득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말만이 아니라 한두 문장을 이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인형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식으로 말을 이어서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자신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등 이유를 설명하는 말을 구사하지는 못합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듣다 보면 아이의 생각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

만 4세가 되면 아이의 판타지는 많이 늘어납니다. 이때 어떤 아이는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바로 말할 수 없어서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아이는 말을 많이 하지만 어른이 듣기에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만 4세무렵의 아이들이 말을 더듬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판타지는 상승하지만 생각대로 말이 따라가지 못해서 더듬거립니다. 아이의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므로 언어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자나 부모가 말을 더듬는 현상을 고쳐 주거나 개입해서 말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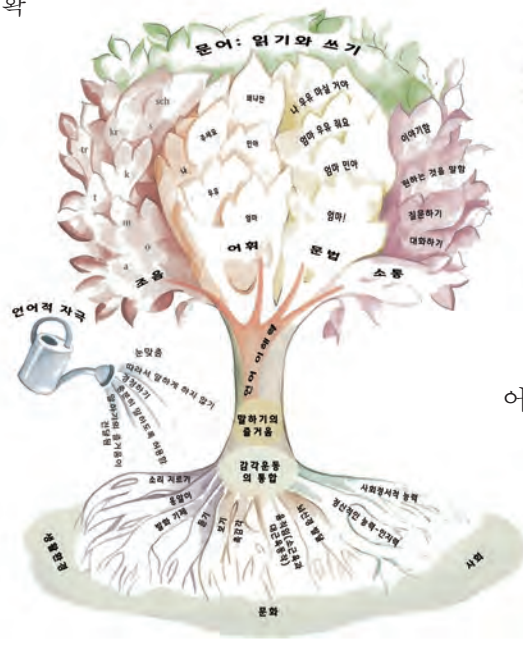
연스런 언어 흐름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최고의 교육적 조치입니다.

[...]

여러분들이 ‘언어 나무’를 잘 이해를 하고, 부모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조금씩 하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아이 언어 발달을 기다려 줄 것입니다. 결국 어른이 언어적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사물에 관심을 보이면 그것을 정확하게 명명하면서 말을 걸어 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인은 아이에게 언어의 본보기 역할을 합니다. [...] 그리고 특히 현상이나 가정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밥을 먹일 때, 교사의 관심이 흠어지면 안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기에게 기저귀를 갈아 주면서 아기와 대화하듯, “이 쪽 다리를 들까?”라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훌륭한 언어 환경이 되며, 이것이 언어적 본보기로 작용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관계 맺음이 잘 이루어지면서 일상에서 나누는 이런 말들이 언어 습득의 중요한 토양이 됩니다. 특히 신세대 부모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기저귀를 갈면 안 됩니다. [...]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관계가 영혼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질적인 관계 형성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교사가 부모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툼은 자주 오줌을 싸고 사회성이 부족해요.” 하지만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툼은 놀이에 굉장히 몰입해요. 그래서 가끔은 화장실 가는 것을 잊어버려요.” 두 표현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부모 입장에서 선생님이 전하는 말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툼은 사회성이 아주 부족한 아이예요.”라는 말을 들으면 한숨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애는 혼자 놀기를 좋아해요.”라고 표현하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혼자 놀든 아니든, 아이가 노는 것 그 자체가 발달에 좋은 일입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강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적절한 순간에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오줌을 싸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자주 화장실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강점으로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를 나무라거나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이의 상황을 부모와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사는 아이를 관대하게 보살피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인 관계가 미숙한 것은 영유아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른은 아이의 단점에 주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누구나 개성을 가진 존재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듯이, 아이의 발달도 저마다 다른 수준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에서 선생님이 전하는 말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툼은 사회성이 아주 부족한 아이예요.”라는 말을 들으면 한숨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애는 혼자 놀기를 좋아해요.”라고 표현하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혼자 놀든 아니든, 아이가 노는 것 그 자체가 발달에 좋은 일입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강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더운 여름날의 작은 변화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을 듣고


노유리
(시립후평우미린어린이집 교사)

후기

올해 여름 아카데미를 신청하며 발도르프 교육을 처음 받게 된 나에게 이번 강의는 굉장히 새롭고 기대되는 시작이었다. 4년 동안 일반 교육을 해오던 나에게 발도르프 교육은 어렵지만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육이라고 느껴졌다. 5개월 동안 발도르프 교육에 함께하며 더욱 전문적으로 배워 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찰나 여름 아카데미라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욕심으로는 모든 교육을 들어 보고 싶었지만, 근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어렵다고 느꼈던 언어 발달 지원에 도움을 받기로 했다. 크로머 선생님은 친절하고 차분하게 강의를 해주셨다. 아이들이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교사나 부모는 수정해주시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다. 아이들의 모든 말은 뜻하는 바가 있고 아이들만의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들은 뒤에는 아이들과 지낼 때 다른 말을 하는 아이에게 “아니야.”가 아니라 “왜?”라고 물어보게 되었다. 내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모두 아이들만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학습과 교정이 아닌 천천히 단계적으로 재미있게 배우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자극을 받는다.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을 느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언어가 발달하며 성장한다. 아직 부모가 되어 보지는 않았지만, 보육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아이들에게 따라서 말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틀린 말을 고쳐 주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물론 되돌아오는 답은 “그랬었지.”였다. 여름 아카데미를 접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

크로머 선생님은 그동안 내가 알던 손유희와는 다른 발유희를 알려 주기도 하셨다. 아이들과 매일 아침을 열며 함께 했던 손유희와는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발유희도 있다는 사실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유희를 알고 며칠 뒤에는 나의 옆에 있는 유아에게 발유희를 해주어도 괜찮을지 물어보았다. 부끄러운 듯 표현했지만 이내 발을 내어 주었다. 발유희를 해주는 동안 아이는 간지러움을 참으며, 발을 잡은 나의 손가락을 보고 웃음을 지었다. 발유희를 해준 유아는 “선생님, 간지러운데 손이 따뜻해서 좋아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유아와 교감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며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발을 내밀며 하고 싶어 해서 웃음이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크로머 선생님은 아이들과 지내며 기저귀를 갈기 전이나 옷을 갈아입힐 때도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우리 반에서 아직 기저귀를 하는 쌍둥이에게 기저귀를 갈아 주기 전에 “선생님이 기저귀를

갈아 줄게.”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아이들은 나의 말을 듣고 함께 움직여 주는 듯하였다. 여름 아카데미를 듣고 나서 나에게도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들과 지내며 나 혼자 고민했던 궁금증들이 조금은 해결되고 나아지는 것 같았다. 다음 아카데미와 교육도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의 관찰 태도와 지원

마리 루이제 콤파니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발도르프 교육에서 아이를 관찰할 때 인지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신체적, 영혼적, 정신적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신체와 연결된 물리적 환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물리적 환경이란 아이를 둘러싼 공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공간의 분위기는 따스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편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 스스로 활동하기에 쾌적한 실내의 공간, 적절한 놀잇감 등, 현장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물리적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환경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적, 영혼적 차원의 환경입니다. 즉, 온기, 안정감,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이가 두려움 없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기다려 주는 교사의 부드러운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교육자의 태도, 행동, 내면의 기분이 거짓이 없고 자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화가 난 상태 또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평화롭지 않으면, 그런 날은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아이들 앞에 설 때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불편하거나 불안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이런 조화로움은 내면의 과장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내적 기분을 유지하며 '중용의 길'을 걷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사의 따뜻한 시선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놀이하는 중에도 어른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늘 지지해주는 어른의 시선, 편견 없는 시선이어야 하며, 아이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교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늘 새로운 시선과 열린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차원입니다. 현장 교사는 아이가 지닌 능력, '할 수 있음'을 믿고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은 바로 치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신적 지원입니다. [...]

영유아 현장에서 교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

이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두 가지 커다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 맺음'입니다. 아이는 탄생과 함께 세상 또는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아이들 내면의 이런 근본 욕구를 심리학에서는 '애착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주변 사람과 자신이 연결되기를 내면에서 그리워합니다. 이런 기본 욕구는 영유아기에는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아이는 고요한 분위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요약하면, 아이들에게는 근본 욕구인 애착 관계, 관계 맺음도 중요하지만, 독립성, 자율성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애착 관계, 관계 맺음이라는 내적 욕구는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아이가 어른과 '함께 있는' 상황, 즉 기저귀를 바껴줄 때, 밥을 먹일 때, 현장 교사 또는 부모가 아이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아이의 욕구, 즉 아이로부터 나오는 자극을 어른이 잘 관

찰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어른과의 관계 맺음을 좋아하므로, 자신에게 보이는 어른의 관심, 즉 어른의 시선이 아이 성장에서 건강한 토대가 됩니다. [...]

현장 교사의 내적 태도, 내적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성인들은 본보기입니다. 어른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는 어른을 모방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방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방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모방이 아이들에게 어떤 작용,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신체 차원에서 우리가 말하고 표정을 짓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아이들이 모방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확인하듯, 아이들은 어른마다 다른 특별한 동작, 표정, 몸짓 등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모방의 영혼적 차원은 아이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동작이나 제스처가 분주하면, 그 분위기가 아이들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빠른 동작, 분주한 분위기, 서두르는 태도는 아이들 내면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현장에서 꼭 유념할 것은 교사의 행동이 차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름이나 성급함은 아이들에게 '독'이 됩니다. 정신없이 행동할 때와 차별하게 행동할 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차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를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특정 아이의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우리 행동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아이는 읽어 냅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적 여유입니다.

[...]

지난 시간에 관찰한 라파엘로의 "초원의 성모" 그림처럼, 교육자는 차별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분함, 흔들리지 않는 시선, 관심, 내적 태연함은 교육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사가 아이의 놀이 상황을 관찰할 때는 외적으로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합



라파엘로의 "초원의 성모"

니다. 아이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빈틈없이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은 내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동적인 시선이 아니라 내적으로 훨씬 적극적으로 아이에 주목하고, 외적으로 태연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놀이에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교사는 아이의 특성, 개별성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 예측되어도, "안 돼, 안 돼!" 하면서 개입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이는 놀면서 경험하는 실수를 통해 직접 세상을 배웁니다. [...]

교사는 놀이 관찰에서 그 아이의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놀이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밀한 관찰을 위해서는 교사의 시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놀이의 발달 또는 아이의 의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사는 놀이 상황을 읽어 내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이 발달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할지는 교사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좀 더 다르게 놀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을 마련하는 일,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관찰하는 시선, 아이를 주의 깊게 바라봐 주는 것 등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가능해집니다. [...]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의 관찰과 지원' 을 듣고

김은혜
(시립후평우미린어린이집 교사)

후기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이루어진 마리 루이제 콤포니 교수님의 <교사의 관찰과 지원> 연수는 아이들의 놀이를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늘 궁금증을 갖고 그 답을 찾고 있던 나에게 어느 정도 해답의 실마리를 주었고, 그 결과 아이들의 놀이를 막연하게 지켜만 보던 때에는 달리 통찰력과 안목, 남다른 혜안으로 지켜보아야 함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마리 루이제 콤포니 교수님은, 아이에게 놀이는 목표가 없고, 그 자체에 의미가 듬뿍 담겨 있다고 하셨다. 놀이는 시간과 연결되며 시작과 끝이 있고, 아이들은 놀이를 즐겁게 하기 원하며, 놀이 속에서 배움 그 자체가 일어난다고 하셨다.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픈 욕구가 있고, 아이들에게 놀이는 진지한 작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만 2세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있노라면, 집중 시간이 짧고, 문제 상황(내가 하고 싶은 놀잇감을 친구로부터 빼앗아 오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 놀잇감을 혼자 소유하려고 하며 양보를 하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경우 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리고 교사가 이에 개입하면 자연스럽게 놀이의 흐름이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또 한 놀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친구의 경우, 교사가 놀이를 제안하고 그 놀이 속에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아이들에게는 놀이 자체가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의 삶에 어른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늘 고민했다. 그런데 마리 루이제 콤포니 교수님께서 교사의 지원에 관해 명확한 답을 주셨다. 교사는 말하지 않고, 아이의 행위 그 자체를 바라보며, 고요히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고, 깨어 있는 의식 상태로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현재 하는 놀이와 놀이의 발달 단계, 놀이의 의도를 살피기 위해 깨어 있음을 말한다. 또한 놀이에 개입하여 집중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관찰하는 가운데 교사가 해야 할 과제는 영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여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동안 내가 한 관찰은 그저 놀이하는 현재 모습에만 집중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영상 하나를 보여 주셨다. 그 영상은 구름사다리를 올라가는 아기의 놀이 모습이었다. 객관적으로 아기의 놀이를 바라볼 때, 아기는 사다리의 반은 올라갈 수 있고, 사다리 하나하나를 발로 느끼며 내려오면서 잠시 멈추었다가, 손을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어 사다리를 내려와야 했는데, 이 손의 방향을 무엇을 통해 바꿀 수 있었는지를 교사가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아기는 사다리를 올라갈 때 사다리의 정점에서 교사를 쳐다보았고, 지켜보고 있던 교사는 사다리 곁에 와서 아기에게 내적으로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손의 방향을 돌리는 거야.'라고 말해 주었고, 아기는 손의 각도를 돌려서 방향을 바꾸었다. 교사는 멀리 있으면서도 아기를 관찰하고 있었고, 아기는 교사의 존재를 믿고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현재 맡은 만 2세 친구들이 유희실 나무다리에서 균형 잡기를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3월 학기 초 나무다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올라타거나 거꾸로 매달리던 모습,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교사에게 자신의 손을 잡아 주기를 요구하여 그 나무다리 위에 올라가 교사의 손을 잡고 몇 초 동안 서 있다가 두 발로 바닥에 불안정하게 착지하거나 혼자서 뛰어내리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몇 명의 친구들은 스스로 나무다리 위에 올라가 두 다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벌리고 양팔을 옆으로 벌려 비행기를 닮은 자세를 취하고는 생각보다 오래 균

다리의 반은 올라갈 수 있고, 사다리 하나하나를 발로 느끼며 내려오면서 잠시 멈추었다가, 손을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어 사다리를 내려와야 했는데, 이 손의 방향을 무엇을 통해 바꿀 수 있었는지를 교사가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아기는 사다리를 올라갈 때 사다리의 정점에서 교사를 쳐다보았고, 지켜보고 있던 교사는 사다리 곁에 와서 아기에게 내적으로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손의 방향을 돌리는 거야.'라고 말해 주었고, 아기는 손의 각도를 돌려서 방향을 바꾸었다. 교사는 멀리 있으면서도 아기를 관찰하고 있었고, 아기는 교사의 존재를 믿고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현재 맡은 만 2세 친구들이 유희실 나무다리에서 균형 잡기를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3월 학기 초 나무다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올라타거나 거꾸로 매달리던 모습,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교사에게 자신의 손을 잡아 주기를 요구하여 그 나무다리 위에 올라가 교사의 손을 잡고 몇 초 동안 서 있다가 두 발로 바닥에 불안정하게 착지하거나 혼자서 뛰어내리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몇 명의 친구들은 스스로 나무다리 위에 올라가 두 다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벌리고 양팔을 옆으로 벌려 비행기를 닮은 자세를 취하고는 생각보다 오래 균

형을 잡았다가 비교적 안전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나무다리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고, 교사인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아이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할지 생각한다. 교사인 나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 나의 자세 등을 늘 세밀하게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면서 다짐하게 되었다. 또 현재 내가 맡은 아이들의 놀이와 비교해 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매 순간 자기의 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어른과의 내적인 애착 관계를 느낄 때 그 성장이 배가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또한 아이는 어른의 태도, 말, 행동뿐 아니라 감정도 모방하므로, 교사인 나의 생각과 감정도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자기 성찰과 자기 연마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 행동을 변화시켜야 사회관계도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리 루이제 콤포니 교수님의 사흘간의 연수를 통해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삶의 모토가 된 말이 있다. “삶으로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당신은 교사입니다.” 이 문장을 끝으로 연수 후기를 마치고자 한다. 🍀



색채론

다니엘 모로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색채론에 대한 연구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가 얼마나 오랜 전부터 빛과 색채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했는지 놀라게 됩니다. 색채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은 르네상스부터입니다. 물론 고대에도 색채를 두고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고대 철학사로 올라가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플라톤은 '색채를 본다는 활동 자체를 고대 신비학의 배경 속에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색을 본다는 것은, 눈에서 발산하는 불의 요소가 태양의 빛과 혼합되어 사람이 빛을 보게 되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눈에서 나오는 불이나 빛에 대한 언급은 전깃불 같은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 또는 촛불 등을 암시합니다. 플라톤의 입장은 눈으로 '색을 본다', '무엇을 본다'는 활동은 눈 안에서 일어나야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고대 철학의 이런 맥락이 오래도록 흘러가다가, 데카르트에 의해 '본다'는 것에 대한 접근이 달라집니다. 즉, 플라톤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17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운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데카르트의 소의 눈에서 시각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데카르트는 이 그림에서 위의 선에 놓인 모양들이 눈에 투영되는 과정을 기하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외부 사물이 망막에 도달하는 시각 활동을 처음으로 도형으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잘 보시면, 위의 작은 도형이 망막에 거꾸로 맺힙니다. 르네상스 이후 이런 데카르트의 설명이 현대 광학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수학자인 뉴턴이 이를 달리 설명합니다. 뉴턴은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찰하다가 빛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가 다루려는 '빛과 색채 연구'의 계보입니다.

* 플라톤 BC 428~348

* 데카르트 1596~1650

* 뉴턴 1642~1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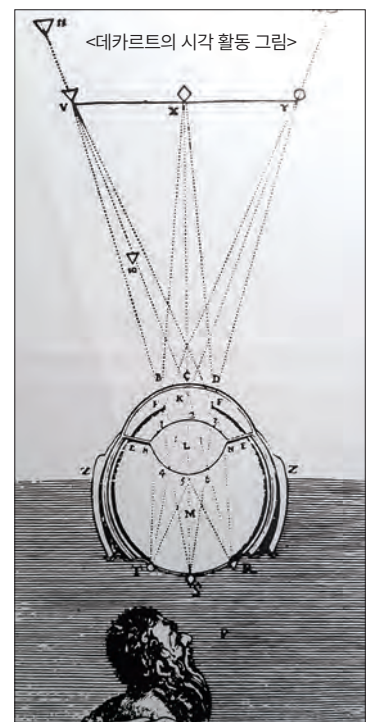
* 괴테 1749~1832

* 슈타이너 1861~1925

현대 광학의 빛과 색채에 대한 정의는 고대 철학과 다릅니다. 뉴턴이 주장한 내용은 50년이 지나서 괴테가 새로운 관점으로 반박합니다. 뉴턴은 광학의 범주에서 색을 설명하지만, 괴테는 색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으로 확

장합니다. 그 후 슈타이너는 괴테의 저작 《색채론》을 편집하고 발간하면서 이 책의 뒷부분을 발전시켜 "색채의 본질"을 인지학적으로 설명합니다. [...]

슈타이너는 괴테의 색채론을 더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제1차 괴테아눔의 천정 벽화를 위해 인지학과 관련된 많은 화가, 예술가들에게 특강을 했습니다. 이때 슈타이너는 '색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는 것을 알고, 3회에 걸쳐 색채가 사람의 내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슈투트가르트 학교 설립 이후 ‘물리학 코스’를 열었습니다. 발도르프 교사만이 아니라 과학과 연결된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강연집이 슈타이너 전집 중에 《색채의 본질》로 출간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하인리히 프리링은 색채를 심리학적으로 적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색의 시각 작용은 우선 건강한 눈과 공간에 투과하는 빛을 전제로 한다고 말합니다. 뉴턴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면,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예술의 힘으로 시력을 회복하면 사물과 색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실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각막에 문제가 있어서 시각 장애를 가졌다가 의술로 시력을 찾은 예들이 지난 20세기 말에 발표되었습니다. 각막 수술에 성공하여 시력을 회복한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의사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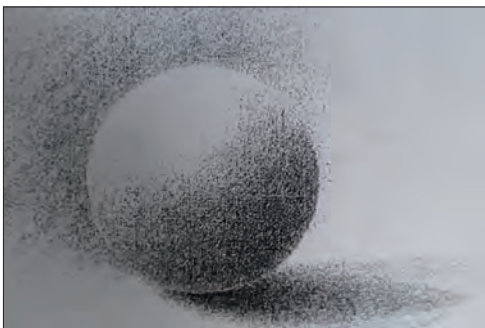
이 아니라 색의 표면이 조금 보일 뿐입니다.” [...] 이렇게 눈이 건강해져도 그 사람이 사물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시신경 전체가 발달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물의 윤곽이나 모양을 보는 훈련이 안 되면 사물 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색으로 된 면만 지각할 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수술 후에도 시각장애자로 살던 방식대로 거실에 전등을 켜지 않았고, 수술 이후 사람들이 “뭐가 보이느냐?”고 수없이 던지는 질문에 좌절하여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

고양이의 시각 작용은 어떻게 발달할까요? 생후 4주에서 4개월 사이에 주변 사물을 충분히 볼 수 없으면, 성체가 된 뒤에도 그 고양이는 사물을 잘 볼 수 없게 됩니다. 동물처럼 사람 눈도 영유아기와 아동기 발달에서 시각적 지각 활동이 충분하게 일어나야 건강한 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교육자인 여러분은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의 사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필 소묘에서 우리는 명암을 통해 ‘구’ 모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육

안으로 공 모양을 파악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우선 공의 배경 중에서 오른쪽은 어둡고 왼쪽은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의 아래부분이 짙어지다가 경계선에서 공 자체가 드러납니다. 그 아래부분은 구가 만들어 낸 그림자로 보입니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이 이 공 모양 그림을 입체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각 활동의 발달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기관인 눈은 시간과 함께 발달합니다. 아기의 눈은 무엇이든 볼 수 있는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생아는 사물에 초점을 맞출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기’가 가능해집니다. 아기가 사물을 입체적으로 지각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아이에게 시각적인 자극이 많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사물을 많이 보는 대신, 중요한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의 눈도 이 소묘를 보고 입체적인 공으로 지각하려면 스케치의 배경과 경계의 접선이 시신경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생후 1년간 아기가 눈에 와 닿는 사물을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기간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 화면이 시각 발달을 치명적으로 방해합니다. [...]

괴테에 따르면, 밝음과 어둠, 즉 명암이 있어야 시각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때 빛과 밝음은 어둠과 대조적인 현상 전체를 포함합니다. 독일어에서는



‘빛’이라는 명사와 ‘밝은’이라는 형용사가 상이하게 사용되지만, 영어에서는 빛과 밝음이 동일한 낱말입니다. [...]

우리는 자연 경관에서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릴 때 빛이 방사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빛줄기가 장관을 이룰 때 말입니다. 뉴턴의 방식대로 말하면, 이때 우리는 빛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괴테처럼 슈타이너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때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의 밝음을 볼 뿐이라고 말합니다. [...]

괴테의 색상환을 보면 색채를 6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 이름은 물리학에서 출발한 명칭입니다. 괴테는 그런 색채명을 기입하지 않고 색상의 영혼적 작용에 주목했습니다. 요즘도 색을 전문으로 사용하는 우리 같은 화가는 색의 명칭들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빨강 대신 진홍색, 자주색 등으로 세분합니다. [...]

뉴턴이 말하는 프리즘의 분광론에 반기를 든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색채는 빛의 행위이자 시련이다.” 괴테는 자연의 빛(어둠)과 눈의 연관을 중시

합니다. 색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작용을 통해 우리 눈이 외부 대상물과 색채를 본다고 설명합니다. 눈에 와 닿는 색채들은 어둠 속의 시련을 겪고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

태양의 위치에 따라 하늘색은 달라집니다. 괴테가 말하는 “흐릿함”은 대기의 중간 영역으로 습도가 있는 대기층입니다. 우주 공간의 칠혹 단계를 뚫고 나와 파랑이 만들어집니다. 일몰 과정에서는 대기권의 수증기 상태에 따라 우리는 붉게 물든 오렌지 빛과 황금색 하늘을 봅니다. [...]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오르면 하늘색이 짙은 파랑입니다. 낮 동안 하늘을 관찰하면 습도에 따라 하늘색의 명도가 다르게 보입니다. 서울처럼 대도시에서 하늘색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의 하늘색은 어떨까요? [...]

항공 탐험대는 우주에서 어떤 색들을 경험할까요?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대기권으로 가면 태양에 가까우면 그 빛을 오래 쳐다 볼 수 없고, 또 다른 가능성은 칠혹 같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주인이 달에 가서 산책을

한다면 태양빛의 반사로 달빛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곳은 칠혹 같은 어둠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강렬한 빛에서처럼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은 색채나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회색의 대기권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색채를 지각하고 그 색채를 영혼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

괴테가 끌어들이는 개념인 “흐릿함”이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기권의 중간층은 어둠을 밀어내야 나타납니다. 우주 공간의 암흑을 상상해 보세요. 대기층을 벗어난 아주 먼 그곳과 중간층이 만나는 부분은 보랏빛입니다. 우주탐험가는 대기권을 벗어나는 그 순간 잠깐 보랏빛을 체험한다고 말합니다. [...]



괴테의 색상환

모로의 그림

괴테 색상환을 토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색상환의 한가운데는 복숭아꽃 빛깔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건강한 얼굴색, 특히 성장기 아이들을 보면 피부색이 복숭아꽃 빛을 마주합니다. 그런 피부색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정신에 해당되는 하얀 빛에 살아있는 영혼이 반영된 색조입니다. [...]



낮설지만 재미있는 <색채론> 강의를 듣고

최윤정
(윤현기획 대표)

후기

‘색은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나타난다’, ‘색의 전체성’, ‘우리 눈에도 색의 전체성이 있다’, ‘색은 빛의 시련이다’ - 후기를 쓰기 전에 다시 본 강의 노트에 적힌 문장들이다. 괴테의 철학을 모른 채 듣는 모로 선생님의 <색채론>은 매우 어려운 강의였다. ‘색채론’이란 주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괴테가 색채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해석이 낯선 것이 더 큰 이유였다.

그는 왜 뉴턴의 광학 이론에 반대했을까?


선생님의 강연 이후 계속 남아있는 의문이다. 난 관람자가 전시를 경험하는 과정을 디자인하는 전시 기획자이고,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덕에 과학 전시를 많이 다루었다. 뉴턴의 광학 이론은 프리즘 실험으로 색을 빛의 특성으로 증명한 이론으로, 우리도 학교에서 배워 익숙하다. “모든 색의 스펙트럼은 백색광에 내재하고 있으며, 백색광을 무지개와 같은 색들로 분해할 수도, 이 색들을 다시 백색광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 그의 실험은 인류사에서 위대한 실험 중 하나로 여겨진다.

괴테가 뉴턴의 광학 이론에 반대한 이유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지, 안 하셨는지, 나는 확신이 없다. 난 익숙한 듯 낯선 모로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읽기 시작한

《괴테의 색채론》 머리말에는 괴테의 색에 대한 생각이 적혀 있었다. 특히 나는 “색채 현상에 대한 자유로운 관점을 폭력과 명성으로 억눌러온 뉴턴 이론의 정체를 폭로하겠다.”라는 문장에서 뉴턴에 대한 그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괴테는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한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한다. (중략) 그 작용을 인지하고 작용을 이해하는 전체 역사가 사물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글로 색채론을 시작한다. 뉴턴이 색을 인간의 감각과 무관하게 대상화하고 색을 빛의 현상으로만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괴테가 비판한 것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반작용처럼 느껴진다. 색채론의 머리말을 읽고 나니, 색채는 시각이라는 감각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난 현상이라는 내용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신 모로 선생님의 강의가 아주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세 번째 강의에서 이루어진 ‘피부색’에 대한 대화가 떠올랐다. 정확한 맥락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영혼의 살아있는 상의 색을 복숭아꽃 색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복숭아꽃 색을 피부색으로 해석하며 생긴 질문이었던 것 같다. 나는 ‘인간의 피부색은 갈색을 띠는 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고 있다. 당연히 멜라닌 색소가 많은

피부는 붉은 혈액의 기운이 외피까지 비쳐 보이는 복숭아꽃색이 아니다. 그리고 살색은 한 가지 색이 아니다. 복숭아꽃색은 왜 영혼의 살아있는 상의 색일까? 괴테의 색채론은 낮설지만, 영혼의 살아있는 상을 색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은 재미있다. 정말 색이란 무엇일까?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은 2012년 독일 비텐/안네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1기가 출발하였고, 2016년부터는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과의 협력으로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과정의 8학기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디플롬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과 연계됩니다. 발도르프학교 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공교육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 발달(만 7-14세)에 맞는 교수방법론을 통해 현장 수업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입니다. 2021년 여름 아카데미는 3기의 두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21. 8. 9(월) ~ 8. 12(목) 10:30-18:40

장소 온라인 (Zoom Live 강의)

교수방법론

이유슬

살아있는 모든 것과 사랑 그리고 성(性)

김주아

에포크 수업을 위한 칠판 그림 그리기

신영주

사람과 동물(동물학)

이은하

맨손기하학

일반인간학

엘마르 슈뢰더 / 통역 여상훈

일반인간학 8강~10강

일반인간학 제8강

엘마르 슈뢰더 (통역 여성훈)

강의 발췌

8강은 감각 지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감각이라는 주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아이들은 감각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각이 흡사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아이들은 꽃을 비롯한 사물을 마주하고 오랫동안 꼼꼼히 바라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장미를 보면 장미가 한 송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슈타이너는 괴테를 인용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지각할 때 그것에 대해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판단하다는 것은 지각이 아니며, 지각한 다음에 따라오는 어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각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지각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각적인 인상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도시 한가운대를 걷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감각적인 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무언가가 눈에 보이고, 냄새도 맡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의 강렬한 색상들과 여러 인상은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학교나 가정 또는 외부 도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아가 슈타이너의 감각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미디어로부터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도 짚어 봐야 합니다.

현대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손을 움직이는 행동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아기에 감각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입학하기 때문에, 저학

년 교사들은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들의 감각 발달과 관련하여 교사인 우리가 이 분야에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통상적으로 다섯 가지 감각 이외에 신경학과 생리학이 발달하면서 다른 종류의 감각들도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돌프 슈타이너는 당시 생리학과 신경학에서 접근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자신만의 감각론을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열 가지 감각, 즉 고전적인 다섯 가지에 새로이 발견한 다섯 가지를 추가하고, 오랜 연구 끝에 결론적으로 열두 가지 감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슈타이너는 감각이란 인간을 통해 물질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추상적인 것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감각을 12가지로

슈타이너의 12 감각 영역

- 자아감각
- 온감각(열감각)
- 균형감각
- 사고감각
- 시감각
- 운동감각
- 언어감각 / 개념감각
- 미감각
- 생명감각
- 청감각
- 후감각
- 촉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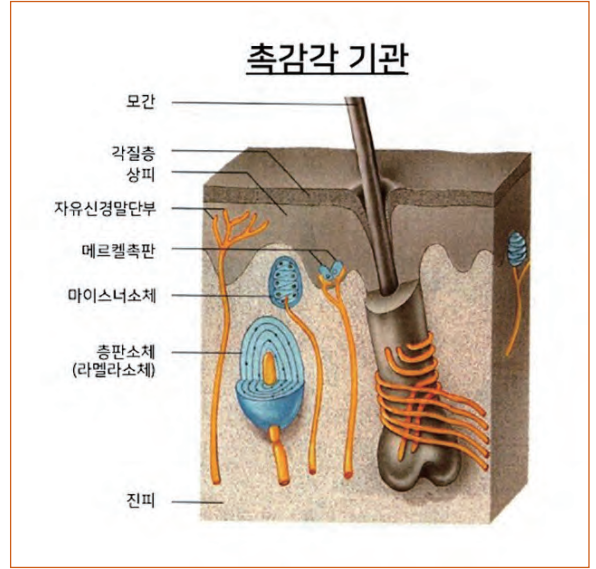
구분합니다. 이 12감각론에서는 감각기관 아니라 감각적인 자극의 원인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얼핏 보기에라도 어떤 순서가 있고 네 개씩 묶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자리잡은 네 가지 감각은 발도르프 교육에서만 이야기하는 감각입니다. 《일반인간학》 제8장에서 슈타이너는 맨 위에 있는 자아감각부터 서술하고, 청감각부터 촉감각까지는 짧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2감각의 특징을 각각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8장의 순서와는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대상을 느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언가를 느끼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평소에는 발바닥의 느낌, 옷을 입고 있을 때 옷에 대한 느낌 등을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촉감각의 경험은 의식하는 그 순간 일어나며, 아이에게는 몸과 바깥쪽이 만나는 첫 감각의 경험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들은 촉감각의 경험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촉감각은 본질과 관련된 근원적인 체험과 연결되므로, 자신의 몸과

피부의 촉감각기관과 자유신경말단부. 메르켈촉판은 압력에 반응한다. 모든 돌레의 신경섬유는 접촉에 반응하며, 마이느너소체도 마찬가지이다. 층판소체(“파치니소체”)는 진동에 반응한다. 상피층의 자유신경말단부는 압력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반응한다.



바깥쪽의 차이를 느낍니다. 어린이는 사물에 대한 성질을 체험하기 위해 무엇이든 손으로 만져보고, 그것을 가장 감각이 발달된 입으로 가져갑니다. 어릴수록 그런 방식으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촉감각을 통해 나와 다른 어떤 것을 확인하고, 그 둘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의식을 가집니다. 촉감각이 많이 무더진 상태인 어른은 맨발로 걸으면 그 촉감각을 다시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눈을 가리면 선입견 없이 원초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른이 경험하는 촉감각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근원적

인 촉감각과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촉감각 기관들은 딱딱한 표면을 느끼기에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기관 자체도 다시 작은 덩어리들이 겹겹이 싸여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이가 어른 무릎에 편안하게 머리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아주 안락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들이 생명감각과 연결됩니다. 반대의 상태도 생명감각과 연결됩니다. 즉 몸의 어떤 상태를 느끼는 것이 생명감각입니다.

다음 쪽 하단의 그림은 생명감각이 작용하는 느낌을 나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락한 상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상태, 포만감 등이 있습니다. 무언가 불편하거나 불안





한 느낌이 들 때 생명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졸음이 오거나 완전한 휴식 후 편안함이 느껴질 때나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 역시 생명감각의 체험입니다. 생명감각은 아이들에게 편안함,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활기차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어린 아이들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사지를 떨며 울지만, 조금 크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기다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영유아기에는 생명감각이 생존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번아웃’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

신경체계는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온몸이 의식하는 것이 우리 신경체계의 역할입니다. 이런 모든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평화롭게 움

직일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신경체계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기능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감각이 편안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른의 경우보다는 어린아이에게 훨씬 더 생명감각의 체험이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 🍷

생명감각이란?

- 배고픔과 갈증
포만감 또는 목마름
- 쾌적함
편안하게 있는 상태
방해하는 것이 없음
- 편치 않음
- 수면욕
- 잘 쉬 상태
- 건강하고 활기찬 느낌
- ⇒ 이 모든 것이 생명감각의 발현임



<일반인간학>을 듣고

올 한해 지속해서 인간학을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슈뢰더 선생님과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이정희 박사님, 통역 여상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1학년들과 마스크를 끼고 함께 지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그 속에서 아

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또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매일 알아가는 요즘입니다. 매일 아이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자책하는 날이 이어지던 중에 만난 슈뢰더 선생님의 인간학 강의는 한여름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았습니다.

1강부터 14강까지 이어지는 긴 연수가 쉽지 않지만, 슈뢰더 선생님의 단계적

발도르프 교육에 관해 알아가는 즐거움, 헌신을 다해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기쁨을 느끼는 요즘, 자주 들리는 인간학, 인지학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알아보려는 참에 인간학을 화상 강의 시리즈로 강의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인간학에 관해서는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라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했고, 특히, 잠과 꿈, 망각과 기억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면을 통해 그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표상, 사고, 원칙, 기억들이 변형되고, 이러한 변화가 삶에서 높은 차원의 도움을 받는 아주 중요한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정신세계의 단

계로 올라간다는 말,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룻밤을 자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 방법론에서 전달 주제를 끝까지 하지 않고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예포크를 시작해서 더 많은 것을 펼치는 학생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지식의 폭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멋진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뭔가를 형성해 내는 일이며, 그런 형성은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찾아내는 길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예빈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1학년 담임교사)

후기

인 안내로 인간학 책을 다시 펼쳐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간학 책을 읽으며 공부해 나갈 좋은 씨앗을 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도 기대가 됩니다. 모두 건강하셔서 마스크 벗고 얼굴 보며 인간학 강의를 나눌 시간을 기다립니다. 🍀

박지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행정교사)

후기

날마다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이 단어들에 슈뢰더 선생님의 강의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울림으로 되새겨졌습니다.

시간마다 집중해야 되고, 더운 한여름엔 피곤하고 땀나고 지쳤지만, 돌이켜 보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뵈고 서로 공부하는 모습들 보면서, 발도르프 교육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강의들도 집중해서 들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열어 주신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살아있는 모든 것과 사랑 그리고 성(性)

지난 여름, 학교 교사 양성과정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난 시간은 함께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처음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는 청소년이 아닌 대상을 만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고민 끝에 작은 용기를 내었을 때, 이정희 박사님께서 이번 수업은 경험을 나누는 자리, 그동안 보낸 시간을 정리하고 나누는 자리로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이번 시간은 어쩌면 필연적인 만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통해 바라본 선생님들은 기꺼이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고,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에 열렬히 화답하며 나홀을 보냈습니다. 화면을 통한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한 그 모든 순간이 성(性)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性'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心'과 '生'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각각 '마음',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心'자는 '가장 깊은 것', '중요한 것', '본질을 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마

음 그것이 곧 성(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性)교육이란 결국 삶을 논하는 것이기에, 80분의 강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성(性)교육의 한 챕터가 된 것입니다. 성별의 구분으로 의미를 좁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된 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자리였고, 우리네 삶 또한 그와 다르지 않으니, 결국 성(性)을 논하는 자리는 삶을 논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논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이번에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몸의 변화에 맞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몸은 계속 변화하고, 그에 맞춰 마음과 생각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자아, 아스트랄체, 에테르체는 신체를 두고 공존하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느끼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변화는 때로 두려움을 불러오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자기 비하를 자기 효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생(生)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지만 또 모두 비슷하므로, 나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타인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 있게 바라볼 때, 적어도 서로를 해치

이유슬
(안양발도르프학교 연합상급과정 교사)

강사 후기

는 일들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온갖 물음표와 질문으로 가득한 성(性)교육. 그 답은 생명이 있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의 나홀은 바쁜 생활에 잊고 지냈던 소중한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지금, 이전보다 더 사랑스럽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에포크 수업을 위한 칠판 그림 그리기

“검은색은 암흑의 대리자이며 감각 기관을 고요한 상태로 머물게 하고 흰색은 빛의 대리자이며 감각 기관을 활동하게 한다.” 《괴테의 색채론》

발도르프 학교에서 사용하는 칠판은 검은색이 칠해진 흑판입니다. 괴테의 연구에 따르면, 검은 칠판은 비어 있어도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그림이 그려지면 색채에 따라 학생이 활발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칠판에 문가 있거나 없어도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니, 이런 이유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흑판, 즉 검은 칠판을 사용합니다.

칠판 그림은 암흑에서 나온 빛의 표현이며, 고요 속에서 아이들을 삶으로 이끄는 전달자와 같습니다. 그림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표상이며,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움직여 그리는 것입니다. 교사의 영혼이 흑판이라는 세계에서 빛으로 아이들의 영혼과 만나는 것입니다. 설렘으로 문을 열고 들어선 발도르프 학교 아이들은 교사가 그려 놓은 아름다운 칠판 그림을 보고 기뻐합니다. 칠판 그림은 교사의 영혼과 내적 세계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사랑이 담긴 칠판 그림을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듯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예술적 행위가 담긴

칠판은 이제 단순한 칠판의 존재를 넘어 아이들을 상상의 세계로 인도해 줄 비밀의 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 여름 아카데미 강좌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 칠판 그림을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칠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칠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 걸레로 칠판을 깨끗하게 지우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통은 2~3번 정도 닦아야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게으르게 하여 지지분한 칠판 위에 그림을 그리면, 완성된 그림도 지지분합니다. 교사가 어떻게 칠판을 사용하는지를 보고 아이들은 교사의 습관을 모방합니다. 교사가 칠판을 소중하게 다룬다면, 아이들 또한 자신의 공책을 소중히 다루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교사 연수에는 각자 칠판이 없으니 쉽게 구할 수 있는 2절 검은 종이 위에 동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칠판은 이 종이보다 몇 배로 크니, 실제로 그릴 때는 비율에 유념하여 몇 배로 크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로 그릴 것인지, 세로로 그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림이 칠판의 얼마를 차지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김주아
(前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및 미술 교사)

강사 후기

좋은 칠판 그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아이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그림이어야 하고, 수업에 맞는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를 지양하는 발도르프 학교 현장에서 칠판 그림은 아이들에게 상(이미지)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혹은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를 잘 표현하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빛깔로 표현하는 오징어를 그릴 때는 오징어의 빛깔을 잘 표현하고, 시력이 좋고 발톱이 날카로운 독수리는 매섭게 반짝이는 눈과 뾰족한 발톱을 인상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코끼리, 사자, 기린 같은 사바나의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지역과 환경을 잘 표현해주는 아카시아와 뜨거운 태양 빛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축가인 비버를 그릴 땐 비버의 생태를 잘 보여 줄 수 있는 집과 나무를 같이 그리도록 합니다.

4, 5학년이 되어 동물학을 배울 나이가 되면, 학생들은 동물의 특징을 나름대로 자세히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아직은 흑백의 그림을 배우지 않는 단계이니, 흑백의 명암 표현을 지양하고 색을 다채롭게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생은 교사가 선택한 색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린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색을 먼저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먼저 그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학년 때는 특별히 빛을 표현하는 노란색을 잘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순수한 노란색을 그리려면 여러분들의 칠판과는 달리 가장 먼저 칠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학년 때 충실하게 배워 나가면, 4, 5학년쯤 되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원색과 혼합색을 넘나들며 표현하게 됩니다.


둘째, 그림에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그린 표상이지만 생명력이 흐르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는 그냥 잘 그린 죽은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4, 5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동물의 역동성이나 살아 숨 쉬는 삶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림에 생명력을 주는 방법은 빛을 따라 그리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레몬 노랑으로 밝게, 반대로 어두운 그림자는 짙은 보라색이나 파란색으로 빛깔을 더하면, 그림이 생명력을 더할 것입니다. 색을 두세 가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을 그릴 때는 보통 동물의 털을 한 가지 색으로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털은 빛에 의해서 다양한 빛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물을 그릴 때 두세 가지 색으로 빛을 표현하여 그림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길 바랍니다. 신이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는 마음을 상상하며 우리도 색을 섞으며 정성을 다해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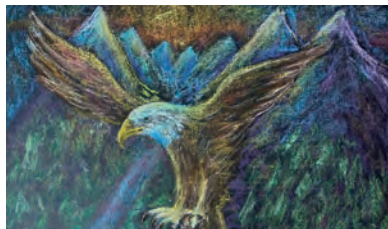
셋째, 전체적인 조화입니다. 여기에는 인물이나 동물의 몸의 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과 배경과의 조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의 모든 수업에서는 먼저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면서 배우고, 나중에 부분에서 전체를 다룹니다. 슈타이너는 아이들이 전체를 먼저 이해하고 부분으로 나아가도록 하라고 여러 강연에서 중요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동물을 주제로 한 그림에서는 동물의 모습을 강하게 표현하고, 배경으로는 동물이 사는 지역, 먹이, 무리 생활 등을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흐름과 함께 그리도록 해서, 전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바깥쪽부터 시작하여 배경을 그리면서 동물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체적인 조화입니다.

넷째, 좋은 칠판 그림을 그리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자 마지막은 예술을 향한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의지의 표현이자 인간의 영혼을 가꾸는 일입니다. 예술이라는 마음의 양식을 영혼에 주어 매일 성장하며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색은 어제의 색과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들숨과 날숨은 그림에도 존재합니다. 그림이 너무 뻣뻣하게 색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숨이 막

혀서 현기증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분필을 너무 꽉 눌러서 색을 칠하지 마시고,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그림에 멜로디를 넣어 보세요. 또는 색을 덜 칠하는 바람에 검은색이 많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어두워진다면, 그런 그림에서는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내적 동기의 힘이 약화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림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교사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업 중에 아이들 앞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이 낯설고 어렵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연습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흑판에 색분필로 영혼을 담아내면, 아이들은 흰 공책에 상상력을 담아 크레용이나 색연필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명력이 있는 교육적인 그림을 그려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시작한다면, 당신의 부족한 부분은 아이들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교사와 학생이 매일 조금씩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발도르프 학교 교육의 특별함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시기에 나는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난 몇 해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인지학센터의 교사 연수에 참석하지 못 하다가, 올해는 온라인 강의가 개설된 덕분에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 과정을 수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했던 이 시간은 나에게 꽤 인상적이었다.

발도르프 학교 교육은 감각적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교육이다. 아이 내면에 남길 인상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다. 예를 들어 이은하 선생님의 맨손 기하학에서 원을 그리는 방법은 공교육의 교수법과는 접근이 전혀 달랐다. 원을 그릴 때 흔히 떠올리는 컴퍼스 같은 도구나 중심과 반지름으로 설명하는 기하학적인 원의 정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손으로 빈 종이에 원을 그리는 시늉을 해보았다. 그런 후에 색연필을 쥐고 종이 위에 손으로 원운동을 한다. 반복적으로 선을 겹쳐 그려 선을 다듬는다. 균형 잡힌 원을 그리기 위한 나의 의지는 몸의 행위로 이어졌다. 원이 찌그러지지 않으려면, 자세를 고쳐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야만 했다. 손의 운동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눈의 움직임을 손끝에 집중해야 했다. 색연필은 책상 면을 따라 끊임없이 진동을 일으

켰다. 사각사각 종이를 긁는 색연필 소리가 귓가에 가득했다. 더욱더 힘차게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나의 몸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흐린 색의 선들이 모여 진한 색의 원을 이루었다. 내면에는 자신감과 도형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감탄이 일었다. 눈의 움직임으로 형태를 파악하며, 중심을 찾는 정확한 감각과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원을 운문의 감각으로 받아들였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에 예술적인 체험을 이룬다는 것이다. 나의 몸을 도구삼아 그린 기하학적 도형들이 수업의 결과물로서 스케치북에 고스란히 미(美)를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맨손 기하학 도입부에서 무수한 선들로 면을 채워 근사적으로 원에 접근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결과물이 아름다워 놀랐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직선을 반복해서 그리다가 갑작스레 ‘원을 발견하는 어느 한순간이 그러했다.

앞에 언급한 교수 방법론은 ‘수학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진리를 전하는 과정이었다. 다른 교과목과 슈뢰더 교수님의 일반인간학 강의도 이런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었다. 가능하면 교사가 먼저 확실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 시, 아이들의 글귀, 상상 속의 이야기 등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신영주 선생님의 동물학은 신비롭게 상상하며 내면

이지혜
(발도르프 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연수생)
후기

에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교사가 몸짓과 표정, 발성을 활용하여 풍부하게 이끌었다. 동물의 생활을 엿볼 때 나는 친진난만한 아이처럼 감탄했고, 내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살아있는 생명을 마주할 때는 내 안에 있던 순수함이 깨어나 생동감 있게 춤을 추었다. 나와 다른 존재로서 그 존재가 가진 생명력에 경외심을 느꼈다. 손에 파스텔을 덕지덕지 문히며 경이로운 생명력을 그림으로 그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가득했다. ‘내 아이에게도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학창시절 받았던 교육은 대부분 지식의 전달을 지향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습득할 수 있는지를 겨루었다. 그래서 학습의 효율을 추구하고 성취한 결과로 가치를 매겼다. 효율과 결과에 집중한다면 ‘과정’을 놓친다. 지식적인 학습은 사람의 한 부분만 사용하면 되지만, ‘전체’를 이해하려면 의지와 감정, 몸의 감각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감각적인 경험과 예술적인 체험은 각자에게 세상을 해석하는 창을 만든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교사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은 기쁨을 주고, 얻은 깨달음은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말의 실현을 사명으로 지닌 존재로 다가왔다. 이것이 발도르프 학교 교육의 특별함이 아닐까. 🍷

발도르프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수공예는 발도르프 학교에서 전 학년에 걸쳐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과목입니다.

발도르프 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은 수공예교사에게 필요한 기본 교육에 대한 현장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발도르프 학교 수공예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학적 아동 발달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예술감각과 여러 방면에 걸친 폭넓은 수공예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깊은 교육적 이해와 예술 구현 능력을 겸비한 수공예교사로 준비되기 위한 본 과정은 총 6 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 아카데미 및 주말 연수, 학기별 과제와 전시, 현장 실습 및 졸업 작품 전시 등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총 700학점을 취득하면 발도르프 학교의 수공예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1년 여름 아카데미는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1기의 네번째 학기였습니다.

수공예(이론, 실기)

마르그리트 뷔글리 뢰슈케 / 통역 김하진

6학년 사람 인형 만들기

예술

손석심

사람 얼굴 그리기

기간 2021년 7월 25, 26, 27, 28, 30일 13:00 - 19:00

장소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6층 강의실 / Zoom 온라인

6학년 사람 인형 만들기

마르그리트 뵘글리 뢰쉬케 (통역 김하진)
강의 발췌

초등 6학년 아이들에게 동물이나 사람 인형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도 맞는 작업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 시기로 봐서 이 때의 아이들이 동물이나 사람 인형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선 동물 만들기를 살펴봅시다. 에포크 수업에서 동물학을 배울 때 아이들은 동물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이 부분을 수공예 수업에 가져와서 확장해 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외양을 작업할 때, 그 동물의 외적 모습을 관찰하면 그 내적 특징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수공예 수업에서는 바느질하여 솜을 채우는 과정에서 경험합니다. 6학년은 '루비콘'을 거쳐 사춘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유년기와 작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작업입니다. 동물이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은 어떻게 생겼고 털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관찰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 인형을 만든다는 것

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인 아동기와 작별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6학년생은 아이가 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치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인형을 만들어서 동생에게 줄 수 있고, 내 방의 어느 구석에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인형을 바느질하는 동안 아이는 자신의 아이 시절을 생각하며 당시의 영혼을 그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형 만들기 작업을 한다고 말하면, 아이들의 첫 반응은 '더 이상 인형을 가지고 놀지

도 않는데 왜 그런 걸 만드나, 시시하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업은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하는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공예 작업의 기쁨을 어떻게 선사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담임 교사가 수공예와 병행해서 에포크 과목에 지리학 수업을 배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학생들이 아침 에포크 수업에서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아이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 등을 수업 중에 질문하게 됩니다. [...]



루돌프 슈타이너는 아이들이 수공예 시간에 인종에 따른 인형 만들기를 추천하며 아이들과 세계 여행을 떠나면 좋다는 방법론을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 인종에 따라 생김새와 의상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형 피부 천의 색깔을 고르게 하면, 아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에스키모인 등 어떤 인형을 만들지 생각하며 선택 과정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신체의 비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아이가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성인은 몇 등신인지를 질문합니다. 성인은 7.5~8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는 성장했지만 비율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비율을 이해하도록 아이들과 함께 머리가 자기 몸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 직접 재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나 어른을 만들지 않고 어린아이를 만들며, 어린아이는 만 4~5세를 말하는데, 어린아이는 보통 4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학년 학생들은 비판력이 상승하지만,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즉 내적 균형감을 잃어버립니다. 절제의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부모, 교사, 학교 전체를 거부하며 균형감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6학년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중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혼자 있으려 하다가 무리를 찾기도 하고, 호감을 가졌다가 반감을 가지기도 하며, 이중적으로 오락가락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교사가 수공예 수업을 구상할 때는 학생들의 사고하기, 느끼기, 행동하기를 매시간에 녹여 넣어야 합니다. 수업에서 아이들이 가슴과 손과 머리에 작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느낌은 가슴, 머리, 손 중에서 어디에 작용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가슴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가슴으로 작업을 한다는 말은 항상 그 작업과 자신을 연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늘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흥미를 잃게 될 때는 다시 흥미를 끌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수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작업이 의지와 관련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지는 두 손과 관련됩니다. 아이들이 작업을 해 나갈 때 인내심을 발휘하여 견디는 순간이 많습니다. 뭔가 잘 되지 않아도 참으면서, 자신의 것이 멋진 작품이 되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고하기는 머리와 연결됩니다. 머리는 수공예를 할 때 얼마나 필요한가요? 내가 어떻게 바느질을 위해 본을 뜰까. 어떻게 이어서 하나의 인형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사전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인형을 만들면서 아이들 안에는 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이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세 가지 영역이 모두 합쳐진 존재입니다.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가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가 말하는 “머리는 동물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

일까요? 머리의 어떤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동물은 굉장히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보고, 냄새 맡고, 맛보는 등 모든 감각의 영역들이 머리에 집중해 있는데, 그것이 동물의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은 머리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인형을 만들 때는 동물의 전체 형태를 본으로 떼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형을 만들 때는 몸 전체 크기를 어떻게 정하나요? 머리 비율을 가지고 인형의 키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업 초반에 신체 비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 6학년에 만드는 인형 유형은 사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가 똑바로 서 있는 인형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똑바로 서 있는 ‘자아’를 가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사지는 비교적 늘어져 있고 흐느적거립니다. 수업에서 인형의 다리에 솜을 채워 가면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생각하며 작업할 수 있습니다. 동물 인형을 만들 때와의 차이는, 동물 인형에서는 눈, 코, 입을 표시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모습에서 동물이 느껴지지만, 사람 인형은 눈, 코, 입을 만드는 수를 놓고 정성스레 머리카락도 심고 사랑스럽게 옷을 만들어 입혀야 사람 존재가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



사랑과 함께 자라나는 수공예 연수

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1기 4학기 여름 아카데미에서는 6학년 과정인 사람 인형을 만들었다. '사람 인형은 왜 배우지? 6학년 발달 과정과 어떻게 달아 있을까?' 순간 궁금함이 스친다. 마르그리트 뷔글리 퇴쉬케 교수님께서 사전에 세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셨다. 한국에서 인형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 6학년 과정에서 인형을 만드는가?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대안적 작업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연수의 갈무리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머리의 4배 비율인 어린이 인형일까? 5학년 과정인 동물 인형은 숨 넣을 때를 빼고는 그 정도로 잡아당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사람 인형은 달랐다. 단단한 머리와 힘에 부치도록 만드는 몸통의 인형이 사랑스러워졌다.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인형의 모습은 마치 동물 인형을 채색했을 때처럼 생생한 느낌을 주었다. 어린이 인형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포근하고 따스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6학년 아이들은 내면과 외면을 구분하는 발달을 보이는데, 사춘기로 접어들어 서서히 유년 시절과 이별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 인형을 만들면서 실현하게 된다고 하셨다.

사람 인형 만들기도 인간학에서 늘

말하는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라는 세 가지 영역이 들어 있었다. 머리는 감각 기관의 총체이다. 하나의 세상을 감지하는 완결된 것으로 머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다른 것을 만드는 순서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 머리를 단단하고 둥글게 만들고, 머리 비율로 전체 몸통의 비율을 정한다. 몸통은 자유롭게 사고하며 직립하게 도와준다. 6학년 때는 자아가 잘 서 있도록 몸통과 다리가 붙어 있는 인형을 만드는 게 적합하다. 팔을 따로 붙이는 것은 자유로움의 표현이다. 세상으로 나아가 자유로운 움직임은 한다는 의미가 있다.

작업 과정에도 세 가지 영역이 녹아 있다. 도안을 뜨고 바느질 순서와 방법을 익히는 사고 영역,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바느질하고 숨 넣는 과정을 배우는 의지 영역, 나의 인형을 예술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내면의 감각 영역이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존중', '열림', '수용', '사람에 대한 사랑'이 떠오른다. 중간중간 질문에 대답해 주실 때나 바느질이 잘 안 될 때,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실 때도 교수님은 연수생 한 분 한 분에 대해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이었다.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손병숙
(발도르프 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1기 재학생)

후기

바느질이 잘 보이도록 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아무리 서툰 바느질을 보여 드리더라도 긍정적인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슈타이너가 한 말을 두고도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지 묻고, 그러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인지학적 근거를 고민하는 모습,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도 고정된 시선으로 보지 않는 교수님의 열린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아이들이 사전 도움 없이 머리 솜을 직접 넣도록 하기 위해 고안하신 방법,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표현되도록 방법론적으로 고민하신 흔적 등, 모든 것이 아이들과 사람에 대한 교수님의 신뢰와 사랑으로 다가왔다. 🍀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가장 내적인 충동이며, 책임은 사랑과 함께 자라납니다.”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오이리트미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안한 동작예술로, 그리스어로 ‘아름다운(eu-)+리듬(rhythmic)’, ‘아름다운 동작’을 뜻합니다.

오이리트미는 발도르프 학교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집중력과 의지력을 기르고, 동선의 움직임이 공동으로 실현하며 공간 감각과 사회성을 키웁니다.

발도르프 교육 운동이 질적, 양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과 발도르프 교육대학의 협력으로 2017년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을 개관했습니다.

현재 예술원은 오이리트미스트 양성과정, 워크숍과 일반인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테아눔 예술분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총 5년 간의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전공자는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자격을 얻습니다. 이후 유아교육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 오이리트미 석사과정 입학 자격, 치유 오이리트미 과정 입학 자격과 오이리트미 앙상블 입단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1년 현재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의 마지막 학기인 5학년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2021 여름 블록 수업

기간 2021년 8월 6일 (금) - 8월 26일 (목) 08:30-18:00

2021년 가을 블록 수업

기간 2021년 11월 1일 (월) - 11월 17일 (수) 09:00 - 18:00

장소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 강의실

음악 오이리트미, 언어 오이리트미

미하엘 레버 (총 책임교수), 하이오 데커

한국어 오이리트미

한미경

통역

한미경, 김주아



2022년 겨울 교사 아카데미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10기 5학기)

기간	2022년 1월 3일 (월) ~ 1월 8일 (토) 09:00 ~ 18:40	
장소	온라인 Zoom Live 강의	
내용	교육이론 • 감각론 심화 (비르기트 크로머) 수공예 • 탁상인형극 “육심꾸러기 고양이” (한은숙)	교수방법론 • 영유아 그림의 해석 (마리 루이제 콤파니) 예술체험 • 합창과 킨더라이어 연주 (이윤옥) • 그림으로 이해하는 아이 발달 (0-7세) (손석심)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3기 3학기)

기간	2022년 1월 11일 (화) ~ 1월 16일 (일) 09:00 ~ 18:00	
장소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내용	교육학 • 교육자의 자아발달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교수방법론 • 수학 1~8학년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 식물학 5~6학년 (신영주) • 식물 그리기 - 칠판 그림, 습식수채화, 밀랍크레용 (김주아)	예술 • 리코더 앙상블 지도법 (이윤옥)

2022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해외연수

일정	1차: 2022년 1월 22일 (토) ~ 2월 3일 (목) (11박 13일)
	2차: 2022년 2월 1일 (화) ~ 2월 13일 (일) (11박 13일)
대상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연수생 (1차 10명 / 2차 10명)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내용	프랑크푸르트 영유아 현장 실습 (5일), 피클러 교육 모델 특강, 인지학 현장 탐방 (스위스 괴테아눔·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 및 발도르프 영유아교육대학·치유센터·위버링엔 발도르프학교·오이리트미 공연 관람 등)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사람은 과거에 있던 것과
미래에 있을 것
사이를 잇는 존재다.
현재가 이어주는
순간이다.
영혼이 된 정신이
물질의 껍질 안에 들어 있는 것,
그것은 과거에서 왔다.
땡아 안에서
정신이 되어가는 영혼,
그것은 미래로 가는 길 위에 있다.
과거의 것을 통해
미래의 것을 알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
미래에 될 것을 희망하라.
그렇게 형성에서
존재를 파악하라.
그렇게 존재하는 것에서
무엇이 될지 파악하라.

1924년 12월 24일,
이타 베크만 의사에게



기쁨은 지금 그 소중함을 알고,
 고통은 나중에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기쁨은 올바른 법칙의 선물이며,
 고통은 지혜의 스승입니다.

슈투트가르트, 1906년 1월
 예크 씨에게

자연의 비밀

초목을 보라!
 그것은 지상에 묶인
 나비이다.

나비를 보라!
 그것은 우주에서
 풀려난 초목이다.

도르나흐, 1923년 10월 26일

기쁨이 은혜의 선물임을 아는 것은
 오늘이지만,
 고통이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지난 뒤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행복해지고,
 고통으로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바젤, 1906년 1월 12일
 게링-크리스트 가정의 방명록에 씀

우주의 정신 존재들

빛으로 우리는 작용하고
직관으로 우리는 다스리고
숙고하며 우리는 활동한다.

우리는 영혼을 움직여
정신의 싸움을
가슴에서 일으킨다.

우리는 인간에게 노래한다
우주의 형성에서
신들의 체험을.

오이리트미를 위하여, 1921년 성령강림절

나는 말을 생각한다

나는 말한다

나는 말했다

나는 정신 속에서 나를 찾는다

나는 내 안에서 나를 느낀다

나는 정신으로, 나에게로 가는 길 위에 있다

오이리트미-수련(아그리파 폰 네테스하임의 6가지 자세)



빛으로 인하여
바위, 초목, 동물과 인간이 보이며,
영혼으로 인하여
머리, 심장, 손과 발이 살아 있습니다.

빛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위가 반짝이고
초목이 꽃 피우고, 동물이 뛰놀고
인간이 일하는 광경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도
가슴이 따스하게 넓어지고
생각이 환하게 움터나고
자각하는 의지가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1923년 11월

하늘에 솟은 해는
제게 사랑스런 빛을 줍니다.
신은 그 빛으로 제게
생명의 귀한 힘을,
또한 신의 권능을 주시어,
그 생명의 힘은 두루 비칩니다.
돌맹이 하나에도,
모든 초목에도,
동물이며 인간 하나에도.

또한 만일
내 가슴 안에
사랑이 머문다면,
그때는 신의 힘이
내 안에도 미치리니,
신의 높으신 권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의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923년, 영국 일클리, 샌드로 스토턴(9세)에게



“... 그리고 모든 관찰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그 관찰 대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다른 어떤 것에 연관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의 과정에 착안해야 신체와 영혼과 정신에 대해 올바른 관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간학》 제7강

“우리는 본래 교육자로는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머리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장래에 될 것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머리 안에 있는 것을 깨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머리 안으로 무엇인가를 옮겨 놓지는 못 합니다...”

《일반인간학》 제11강



응용 인지학의 현장 소식

42 꿈꾸는어린이집

44 낙원어린이집

47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50 별꽃씨어린이집

53 푸른숲발도르프학교

55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

58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존중과 공감의 돌봄 현장, 꿈꾸는어린이집

임은화
(꿈꾸는어린이집 원장)

건강한 리듬

꿈꾸는어린이집은 용산구 효창동 언덕 위 '베네스아파트' 라는 작고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영아 현장입니다.

2012년 발도르프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싶어, 아이들에게 좋은 리듬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들과 하루 리듬을 조금씩 수정해 가며 지금의 리듬을 만들어 왔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공부해서 좋은 점은 강의 후 함께 모여 어떤 것이 감동적이었고 어떤 것이 우리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아들에게 가장 좋

은 리듬은 영아들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순차적 하루 리듬입니다. 어린 영아부터, 때론 배가 고프고 졸린 아이들부터 먼저 오전 간식을 먹고 점심식사 후에도 먼저 낮잠을 자는 리듬을 만들어, 영아들의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이 보장된 놀이 환경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움직임이 보장된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어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실내 자유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만의 놀이에 집중하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놀이의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실외에는 정원과 놀이터 두 곳에서 자유롭게 놀이

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아파트 바로 윗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민감해지시는 바람에 넓은 정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매일 아이들과 나무와 꽃, 흙과 모래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다는 것, 아파트 놀이터가 가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2학기에는 4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효창공원이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모님들과의 협력

부모님들과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밤에 줌과 대면을 병행하여 모임을 가



저, 아이들의 발달과 발도르프 교육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면 모임을 하지 못할 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부모님들의 투표를 통해 시간을 정해 한 달에 한 번, 주말 밤 10시에 온라인 책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책 공부를 통해 성장하고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알기에, 모임 시간마다 많은 부모님이 참여해서 함께 책 모임을 이어갔고, 올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중과 협력의 돌봄을 실천하는 교사

꿈꾸는어린이집의 보물은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매 학기 전문가 연수, 심화 과정 연수에 참여하며 중심을 잡고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꿈꾸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데 선생님들의 열심은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존중과 공감의 돌봄 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점을 나누며 지키려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숨기는 것이 없이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아이들, 동료 교사들, 부모님을 만나자!

둘째, 아이들과 함께할 때 아이들이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눈빛과 언어와 손길로 따스함을 나누자!

셋째,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일과를 보내자!

넷째, 돌봄을 하는 교사와 놀이를 관찰하는 교사로 반드시 역할을 나누자!

다섯째, 돌봄 과정에 집중하고 말을 먼저 한 뒤 행동하여 존중과 협력의 돌봄을 실천하자!

꿈꾸는어린이집도 이제 열 살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생님을 정년퇴직으로 떠나 보내고, 새롭게 발도르프 공부를 시작하며 발도르프 전문

가로서 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을 지원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한 선생님들의 사랑과 수고의 손길이 어린이집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아이들만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한 현장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 선생님들에게 대한 지원과 복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 현장들이 그렇듯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많이 부족하지만, 선생님 업무와 복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찾아 내고 있습니다. 꿈꾸는어린이집의 하루하루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에게도 행복하기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



낙원어린이집의 성장 보고

김종헌
(화순 낙원어린이집 원장)

- KASWECE(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 이사회 화순·담양 발도르프 교육현장 워크숍 중

깨어남

지금은 인적이 많지 않은 전남 화순의 광산촌에 있는 화순 낙원어린이집은 도시의 지적 교육을 동경하는 지역 분위기를 타고 문자, 숫자 교육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다른 곳의 아이들보다 교육과 문화에서 소외된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의식하지 못하고, 등·하원 차량에서까지 문자를 지도할 정도로 교사들이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위안으로 삼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4년 동작구에서 발도르프 교육에 관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의 '보이지 않는 아이의 발달과 존중하는 돌봄'이라는

메시지의 큰 울림을 가지고 돌아보기가 시작되었고, 아이의 그림 속에 로봇, 괴물, 광선검에 손상되는 어린 발달의 씨앗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미안함과 자책감을 열정으로 바꿔, 네 명의 선생님과 1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서울과 화순을 오가는 고통과 보람을 시작으로 발도르프 교사로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교사 초빙에 대한 갈망이 커졌지만, 인지학센터의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독일 현장 실습을 다녀오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평범한 우리가 곧 좋은 교사로 성장하는 것으로 그 갈망을 채워야 했습니다.

미숙하고 더딘 우리와 달리, 아이들이 놀이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라져 가던 아이들의 미소가 들꽃처럼 환하게 피어오르던 그 순간은 지금도 전율처럼 기억됩니다. 재정이 어려워 물리적인 발도르프 교육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뎠지만, 그 부족함을 상상력으로 채워 가며, 말라버린 나무에도 놀이의 꽃을 생명처럼 피워내는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정신세계에서 온 아이들의 존재에 경이로움과 감사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낙후되고 위축되었던 시골의 문화적 소외감과 열등감은 사라지고, 내



발도르프 전환 초기, 일반 교육 물품에 자연물과 발도르프 인형이 들어오기 시작함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놀이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풀꽃을 담은 놀이터

가 살아가고 있는 곳의 냇가, 숲, 논과 밭의 비탈길 등 감각적으로 완벽한 교육 환경인 자연이야말로 낙원어린이 집에 내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라남

‘3년쯤 지나면 우리도 발도르프 교육을 70% 정도는 구현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사 교육과 리듬 생활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교사의 준비가 충실했고 풍족한 자연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지만, 자연을 가꾸는데는 사람의 예술적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눈앞에 구현되는 외적 환경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은 깨달음의 속도처럼 빠르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로 마당의 놀이터에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부터 우리의 의지로 놓아 가는 더딘 걸음마의 연속이었습

니다.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지속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가운데 진실한 관계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의 노란색만 봐도 도망치던 만 2세 남자아이가 왔습니다. 아이의 적응을 위해 2주간 함께 등원하던 아버지께서 물고기와 송아지를 보며 편안하게 적응한 아이의 변화에 놀라셨습니다. 그 뒤 어느 날, 그 분이 승용차에서 전지 가위를 꺼내 어린이집 마당의 나무들을 다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원장님이 원하시는 놀이터를 그려 보세요. 그리고 흙 10차 정도만 받아 주세요.”하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자연물 놀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적응 과정을 지켜 보며, “내 손으로 이 멋진 마음이 담긴

어린이집의 정원을 멋지게 바꾸어 놓을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조정하시는 그 부모님의 헌신적 재능 기부와 결합하여, 아이와 부모와 교사가 함께 일구는 환경의 변화가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였답니다.

산비탈에 쓰러진 나무를 끌어온 것이 놀이 환경으로 바뀌고, 버려진 바구니가 교실 벽면의 액자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아이를 향하겠다는 내면의 나침반을 발견하고는 행위로 사고하는 인간으로 성장하여 가능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도심에서 자연주의 교육을 찾아오는 아이,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 조부모의 손에 길러진 아이, 아빠의 폭력에 노출된 다문화 아이 등, 다양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가정의 아이들로 구성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 같은 수준의 아파트 단지에서 성장하고 같은 수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다른 계층의 아이들을 접하지 못하는 ‘현대’의 환경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사회의 통합 기능을 녹여 넣어야 하는 환경, 대도시 상류층의 전유물인 고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포장하는 접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환경이었답니다.

그렇게 동경했던 도회지나 유럽에서 전해진 선진 교육 문화라는 충격보다는, 우리와 내 안에 있는 낙원을 발견하는 거울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

니다. 그 변화가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발달을 지켜줄 수 있는 낙원인 이곳 어린이들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눈에 돌맹이를 던져서 주워 내기가 힘드시대요.” 하원길에서 만난 학부모님께서 마을 정자에서 만난 할머니의 하소연을 전달합니다. 버려진 돌맹이의 모범적인 사용을 고민하던 선생님이 아이들의 산책길에 동행합니다. 친구들과 거친 숨을 함께하면서 땀방울을 묻힌 돌맹이들은 아이들의 손길이라는 마법을 통해 어린이집 입구의 오솔길로 바뀌어 갑니다.

돌길을 만들며 아이들에게 한 수 배워 봅니다.

“버려질 돌맹이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자리를 찾아주지 못한 게 아닐까?”

2019년 12월 7일 KASWECE(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가 창립

되었습니다. IASWECE(국제발도르프영유아교육협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우리의 역할과 지원에 힘을 모으기 위해 공식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6월 KASWECE 이사회 워크숍이 6월 18부터 화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국제회의는 세계 곳곳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개성을 지니지 못하게 된 상황을 돌아보고, 각지의 문화와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발도르프 교육의 다양성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삼류 발도르프 교육을 보여 드릴게요.”

워크숍에 참여하신 이사님들과 함께하는 첫 견학을 앞두고 낙원을 소개하는 첫마디였습니다. 교육적 접근 환경이 뛰어나지 못한, 독도처럼 성장해 온 낙원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발도르프 교육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드리고, 그 미숙함과 독특함을 다양성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까지 수줍게 공개하였습니다.

발도르프 아스토리아 담배공장 직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발도르프 교육이 100년 후 한국의 외딴 광산촌의 낙원어린이집에서 부서지고 변형된 가운데서도 고유한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삼류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열등의식을 따듯하게 품어 주시고, 비교 대상이 아닌 고유한 일등 발도르프 교육 현장으로 바라봐 주신 KASWECE 이사님들의 혜안과 발걸음에서 기운을 얻어. 앞으로의 길을 위한 성찰의 발걸음을 옮겨 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동료들, 위축되지 않는 정신의 확장을 보여준 영혼의 동료들이 함께 가기에 힘을 얻습니다. 🍷



돌길을 만들며 아이들에게 한 수 배워봅니다. “버려질 돌맹이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자리를 찾아주지 못한 게 아닐까?”

강남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권희려

(강남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학부모)

안녕하세요. 강남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에 여섯 살, 세 살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권희려입니다. 동경의 눈으로 읽어오던 한국슈타이너인 지학센터 소식지에 킨더가르텐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두 명의 재원생을 둔 학부모로서 느끼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으로 큰아이를 낳은 저는 '자연스러운 인연'으로 발도르프 교육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과 소규모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발도르프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에게서 공통으로 느껴지는 성숙미, 인간성에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지지해 주는 발도르프 교육철학에서는 특히 영유아기를 '모방과 본보기'를 통해 배우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제2의 엄마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좋은 선생님과 인연이야말로 어린 자녀에게 큰 선물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조건 발도르프 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

내겠다고 마음먹었고, 7세까지 쭉 보낼 수 있고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는 발도르프 유치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곳이 바로 강남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입니다.



두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입학 상담 차 처음 킨더가르텐을 방문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적한 주택가 건물에 위치한 킨더가르텐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킨더가르텐의 문이 열리고 내부에 들어선 순간, '아! 바로 이곳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킨더가르텐

의 이미지는 부드러운 나무와 파스텔 톤 색들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공간처럼 아늑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조망마저 무명천으로 가려져 아늑하게 조성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나무로 만든 놀잇감, 뜨개질로 만든 기다란 띠, 솔방울, 열매, 수제 인형, 천 등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밝은 표정으로 각자의 놀이에 빠져 있었고, 간혹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연령으로 받을 나누는 다른 일반 유치원과 달리 크고 작은 아이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와 아이가 들어가자, 제일 큰 누나로 보이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아이에게 장난감도 갖다 주고, 귀엽다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놀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집처럼 내부가 보이는 주방 안에서는 요리 선생님이 아이들과 다정하게 대화를 하기도 하며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고, 식탁 위에는 제각기 다른 그림이 수놓아진 천으로 된 식탁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개성이 넘치는 식탁보 위에는 곧 차가운 스테인리스 식판이 아니라 청자로

된 식기들이 정갈하게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 온화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정말 좋은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과 같이 편안한 환경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라는 느낌이 확연히 들었습니다. 속으로, '왜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유치원이 없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과, '내가 다니고 싶을 정도로 좋은 유치원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곧이어 밝은 표정으로 친근감을 주시면서도 신뢰 가는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니고 계신 최분희 원장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초보 엄마의 고민과 심정을 헤아려 주셨고, 발도르프 유아교육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입학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큰 짐을 던듯, 마음이 참으로 편안해진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큰 아이는 네 살부터, 그리고 작은 아이는 세 살이 된 올해부터 킨더가르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개 글을 쓰기 위해 그간의 생활을 되돌아보았는데,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아 짧은 글에 어떻게 모두 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하원 길에 만난 재원생 엄마들께 킨더가르텐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역시 이심전

심으로 다른 학부모님들도 킨더가르텐의 장점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한 분이 발언권을 얻은 동안 다른 엄마들의 얼굴은 이런 면도 정말 좋다, 저런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킨더가르텐 이야기는 연재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농담을 할 정도로 미담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훈훈한 이야기의 끝은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가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 킨더가르텐 생활을 통해 더욱 더 자유롭고 건강한 어린 시절을 선물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엄마들 곁에 있던 아이들 역시 별다른 놀잇감도 없는 공원에서 연신 웃어가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중 엄마들이 공통으로 느

낀 가장 좋은 점은 역시 '사람'이었는데요, 킨더가르텐에는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이신 빛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진심 어린 마음, 긍정의 눈을 가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킨더가르텐의 선생님들! 킨더가르텐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개성이 빛나는 모습, 발랄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아이다운 모습을 간직하며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부모들에게도 든든한 육아 멘토로서 지원군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킨더가르텐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예 중 하나는 졸업생 아이들이 킨더가르텐에 자주 놀러 온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에도 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매일 킨더가르텐 꿈을 꾸고 킨더가르텐 생활을 그리워한 나머지 엄마 손을





무 숲, '민들레 숲', '맨발공원', '모래 놀이터'였습니다. 놀잇감도 주로 플라스틱류를 자주 가지고 놀던 이전에 비해 곤충, 꽃, 풀, 돌 등 자연물에 관심을 가지고 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절약하는 삶, 좀 더 환경친화적인 삶을 사는 혜택을 누리게 되기도 했지요.

이렇게 킨더가르텐 소개를 위해 그간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도 다시금 스스로 느낍니다. 발도르프 교육, 그 중에서도 '강남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이라는 보석같은 기관에 인연이 닿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말입니다. 끝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의 건강한 리듬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 가득한 평정심'으로 한결같이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을 배워갑니다. 🍀

잡고 다녀간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킨더가르텐에서 안정된 리듬 생활을 잘 따라가려면 가정에서의 생활 역시 그러해야 함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리듬 생활에 금이 많이 가거나 미디어 노출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된 주말을 보내고 등원을 한 날에는 바로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초보 엄마로서 우왕좌왕하며 보내던 날들에 비해, 아이들이 킨더가르텐 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가정생활의 리듬도 안정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킨더가르텐의 규칙대로 미디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데려가지 않도

록 하고, 같은 시간에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아이들의 심신 안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바로 엄마인 저 자신, 부모였기에 킨더가르텐 선생님들의 지도를 더 잘 따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도회지의 이미지와 다르게, 킨더가르텐에 다니면서 저희 아이들은 훨씬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킨더가르텐 생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날씨에 관계없이 매일 산책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밴 큰아이는 여섯 살이 되어 자기주장이 생기기 시작하자 주말에 가고 싶은 곳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킨더가르텐 산책 코스인 '갯나

발도르프 교육을 지향하는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 별꽃씨를 소개합니다.

김주연
(별꽃씨어린이집 학부모)

여러 발도르프 유아 기관에서 ‘협동조합 어린이집 설립’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며, 인지학센터로 관련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별꽃씨 어린이집이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서 어떻게 설립이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소개함으로써 협동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관들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 늦가을,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몇몇이 한집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기관 보육을 받고 있었으나, 부모들은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온기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고, 이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만들어 아이를 함께 키워 보자”는 뜻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보육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 끝에 ‘부모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에 이르렀지요.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설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요인인 터전 마련에 있어, 개원 초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한 가정에서 터전 전세금을 개인 대출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터전

이 마련되었고, 2013년 개원 이후 지금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광교산 자락의 작은 마을인 ‘더불어 마을’의 마을회관 1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꽃씨 어린이집은 발도르프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원장님을 포함한 3명의 정교사 선생님과 두 분의 보조 교사, 조리사 선생님과 19명의 아이가 혼합연령반으로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발도르프 어린이집처럼 습식수채화, 수공예, 손유희와 라이겐, 규칙적인 바깥 놀이와 긴 산책,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한 식단 등으로 아이들의 신체, 감정, 사고의 발달을 연령에 맞게 지원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별꽃씨 어린이집의 운영은 총 7장 42조로 이루어진 <별꽃씨 부모협동 어린이집 정관>의 내용과 지침을 준수하며, 정관에는 어린이집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조합 사업,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 인사 규정, 직원의 인사 및 급여 규정, 조합 가입과 탈퇴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관련 업무는 원장님을 포함한 교사회에 일






임하고, 이를 제외한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조합의 의사결정 협의체인 이사회를 두어, 이사장,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시설위원회, 홍보위원회에 부모들이 소속되어 역할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별꽃씨 어린이집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 외에 조합 회원으로 가입할 때 납부하는 출자금, 가입비와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 보육료, 후원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은 운영 규정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는 총회에서 결정된 바를 따르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

황에서는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는 운영비를 면제하되 그 개월 수를 제한하거나, 조합에 채무가 발생할 때는 조합원 전체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등,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꽃씨 어린이집의 교육 및 보육 영역은 교사회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 교사인 원장이 서면 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수립된 의견을 참고하여 교육 및 보육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모님들은 보육

과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제안할 수 있으며, 교사회는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되, 이는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율합니다. 더불어 교사들은 매해 인지학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사 연수와 예술 작업 등 다양한 발도르프 교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보장받고 있으며, 부모님들은 정기적인 부모 교육을 통하여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엄마 모임, 아빠 모임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가운데 공동체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지 근처를 지나시다가 열아홉 개의 반짝이는 별들을 보시거든 언제든지 들려 주세요! ‘협동어린이집’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별꽃씨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형태 중 ‘협동어린이집’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별꽃씨는 협동어린이집 설립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였고, 조합원들이 모두 부모의 자격으로 가입한 것이라 부모 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 협동어린이집의 설치 절차와 운영 방식,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어린이집

가. 정의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 제 1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어린이집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 협동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이사회 임원 등)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또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5~10인 이내 이사회)를 운영해야 함

※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민법」 제 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상상이 현실이 되다

- 푸른숲 신축 학사, 그 탄생 이야기

우미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2학년 담임교사)

정신의 힘이

이곳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정신의 빛이

이곳에 선하게 일할 수 있기를

-푸른숲 신축 학사에 새겨진 슈타이너 시



오래된 꿈, 푸른숲 신축 학사가 건립되었습니다. 푸른 자리, 숲 자리에 이어 새로운 배움터인 열매 자리가 푸른 하늘에 멋지게 우뚝 서 있습니다. 새 건물 이름은 푸른숲발도르프학교 ‘열음자리’. 8년 담임 과정을 지나 4년 상급 배움에서 저마다의 열매(열음은 열매의 옛말)를 맺어 세상 문을 힘차게 열어 나아가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12년제 발도르프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뚜벅뚜벅 걸어온 지 18년, 2022년이면 푸른숲발도르프학교의 나이는

스무 살이 됩니다. 자아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2003년, 개교하면서부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온전한 성장이 있는 학교를 꿈꾸었습니다. 지금의 학교 터인 광주 원당리에 터전을 마련해 이사를 오긴 했지만, 담임 과정 학사를 짓고는 상급 학사는 훗날을 기약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며 상급 배움터는 더 필요해졌고, 옛 건물인 작은 컨테이너를 마련했지요. 그곳에서 학생들은 발을 동동거리며 추위를 견뎠고, 아침마다 나무 장작을 깨고 난로를 피워 연기에 목이 칼칼한 채 수업을 했습니다. 담요로 온 몸을 둘둘 말아 온기를 간직했고, 발칙한 담요 패션이 웃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날은 추운데 화장실은 왜 그리 먼지,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학생들의 투덜거림이 들리는 듯합니다.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그 시절을 따뜻하게 추억하고 있겠지요.

#1 낡고 불편했던 옛 학사를 떠나보내고

2020년 7월 3일 금요일, 낡고 불편했지만, 정들었던 컨테이너 상급학사

를 떠나보내는 고별식은 푸른숲 모두에게 특별했습니다. 지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추억과 이야기를 만들어준 이 공간뿐 아니라 이 공간을 만들어주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팔을 둘러 꼭 안아주었습니다.

#2 졸업생들이 상상하고 설계하다

푸른숲 신축 학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힘이 주춧돌이었습니다. 푸른숲을 졸업하고 건축 공부를 하는 졸업생이 설계 과정에 참여했고, 그림 공부를 하는 졸업생이 멋지게 그린 밑그림이 시작이었습니다.

신축 학사를 마련하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펀딩,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정성 어린 답례품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퇴촌 강변에 있는 예쁜 돌들로 엽서꽂이도 만들고, 손수 감빛으로 물들인 마스크, 주머니, 원목 도마를 만들어 보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후원자는 세 아이를 둔 옛 푸른숲 조합원이었습니다.

#3 부모님들 땀방울로 지어진 새 배움터

2020년 10월 17일, 가을별이 좋은 날, 첫 삽을 떴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푸른숲 식구들 이름을 쓰고 차곡차곡 쌓아 소원 탑을 만들었지요. 그 소원 탑은 신축 학사를 빛내는 멋진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8개월간의 공사 끝에 이듬해 5월 어느 봄날, 새 건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을, 겨울, 봄, 세 계절을 지나며 학교가 지어졌고, 울여름 내내 그 꿈의 공간에서 학생, 교사, 부모들은 가르침과 배움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지요. 짐을 옮기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가구를 만들고 칠판을 다는 등, 수많은 일을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힘을 모아 다 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나 대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고마워

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멋진 건물이 우리 앞에 잔! 나타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술하게 흘렸던 땀방울들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4 고맙고, 또 고마운 일

옛 컨테이너 건물을 부술 때, 저학년생들이 “왜 건물을 왜 부숬요?”라고 물었습니다.

“저 건물이 너무 좁고 화장실도 없고 해서 언니, 오빠들이 그동안 고생을 아주 많이 했어. 그래서 조금 따뜻한 새집을 지어주려고.” 하고 대답했지요.

건물이 사라지는 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고는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화장실도 생기게 해 주세요. 따뜻하게 해 주세요.”

이제 푸른숲 열음자리는 따뜻하고

시원한 멋진 배움 공간이 되었습니다. 재정 지원 하나 없는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멋지고 번듯한 학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또 고마운 일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서로 연결되어 삶이 이루어지듯, 푸른숲이 걸어 온 역사도 그러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푸른숲에 발자국을 남긴 선배, 부모, 선생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동안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ITEP 교육적 창의성을 향하여

- 2021. 9. 15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
회원의 날 ZOOM 국제 특강

수전 하워드
(통역 이정희, 정리 백미경)

100년의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질문하며, 버릴 것은 버리며 이 시대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찰하여, 새로운 발도르프 교육의 변화에 적용할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 교육을 받는 교육자들, 현재 활동 중인 교육자들, 교육을 받아 성장한 교육자들이 어떻게 자기 연마를 이어가면서 내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 교육 과정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자를 길러내는 사범대학 또는 교사 양성 코스를 담당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발도르프 교사들을 뒷받침할 것인가, 그리고 교사 양성 코스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차원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두고 5년 동안 괴테아눔의 교육분과와 헤이그의 발도르프 국제기구("Haager Kreis")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교사 양성 단체들을 초대해서 치열한 고민과 토론 과정

을 거쳐 이 문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번역본으로 가진 것, 즉 "ITEP" - International Training Education Project는 이 5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앞으로 교사 양성 방향과 교사 양성 기관들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각 나라의 교사 교육을 위한 사범대학(교사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 교육 기관 포함)을 끌고 가는 전문가 그룹이 여기의 기준점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ITEP라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각 나라에 '이렇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각 나라, 각 문화에 발도르프 교사 교육 양성과정을 만들 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극제일 뿐,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라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ITEP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즉, 발도르프 교육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교육을 담당하는 현재의 교육자와 교육 중인 미래 교사들, 그리고 교사를 양성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곱 가지 방향은 학교 교사와 교사 양성 기관의 교수진 양쪽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을 영유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우리의 미래를 가져갈 것인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교사 양성 과정을 밟을 때의 상황과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즉 내적 태도의 변화 등에서 과거와 현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도 좋습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교사로서 자기 성장, 자기 연마의 강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성장을 위한 내적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 걸까요? 자기가 자신을 수업하라는 뜻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는 존재가 신체적인 관점, 영혼적인 관점, 정신적인 관점에서 정체성을 다시 찾고, 그것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내면 작업의 성장 과정을 위해 전문가 양성 코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차원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나의 성장,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장이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사람의 성장 발달을 인류학의 차원을 넘어 인지학의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슈타이너가 뜻하는 바, 즉 인지학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새로운 교육학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술성입니다. 우리 또한 연수생으로 예술성의 연마를 다양

하게 시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술이 연수생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술에 대한 연마를 많이 한 교사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성의 연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 제외하더라도, 학교 담임교사뿐 아니라 상급 교사에게 예술성을 강조합니다. 교사는 연구하는 사람, 탐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주문이 발도르프 영유아 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사 양성 코

스를 졸업하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여 현장에 안주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나의 성찰과 성장을 위해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질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슈타이너가 말하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결됩니다. 이것을 담임교사, 상급 교사, 영유아 교사들은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과 사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새롭게 펼쳐야 합니다. 사회 변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접근이 교육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육자는 사회 변



화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늘 깨어 있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기구인 IASWECE 전 단계에서 국제 발도르프 유아교육 연합을 발족시킨 헬무트 폰 퀴겔젠 교수는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에서 우리에게 늘 정신적인 혁명가, 활동가가 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적인 활동가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활동가는 활동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혁명가에 가까운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진 적극적인 활동가, 교육을 통해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적극적인 활동가를 말합니다. 결국 사회적인 안녕과 평화를 위해 교육자들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이슈를 또 다른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고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는 실천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여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섬세하게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제적인 교사 양성 코스 등 교수와 교사 양성 기관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의 '대부'였던 헬무트 폰 퀴겔젠 교수가 이런 표

현을 했습니다. “영유아기 교육의 근본은 사랑이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아이를 키워내는데 사랑으로 연결되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나아가 아이의 부모인 어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결국 퀴겔젠 교수는 사랑이 근본적인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로 여러분에게 슈타이너가 이타 베크만에게 전한 잠언 중 일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있던 것과 미래에 있을 것 사이를 잇는 존재이다.

현재는 순간이다. 영혼이 된 정신은 물질의 껍질 안에 들어 있다”

여러분이 만들어 낸 한국연대가 잘 성장하도록 서로 협력하여 앞으로 발도르프 교육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발전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 여러분이 여러모로 애쓰시는 만큼, 한국의 영유아 교육이 더욱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

이 글은 한국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kaswece.org)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을 소개합니다

이상아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2021년 5월 1일, 한국 발도르프 학교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니다.

발도르프 교육이 무엇인지, 무엇이 한국의 발도르프 학교를 발도르프 학교답게 하는지.

그리고, 왜 발도르프학교 연합이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어야 했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 그랬습니다. 각자의 학교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 내기도 힘든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부족한 준비에 대한

염려와 이기적인 필요에 대한 우려로, 그런데도 이미 자리한 막연한 기대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울고 웃던 시간이었습니다.

발도르프학교 연합(준) 활동 기간은 회원을 고려하는 각 학교가 제 위치를 돌아보고, 발도르프 학교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우리가 협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를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 땅에서,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모아 어떻게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

고자 하는지를 두고 단체 출범을 위한 세부 조항들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교사연합, 학부모연합도 각기 제 위치에서 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발도르프학교 연합은 두 단위의 결합체입니다.

발도르프 학교를 꾸러가는 길에 학부모들의 몫이 큰 것은 아직 발도르프 교육의 기반이 약한 한국의 특수성이자 때로 교육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한계로도 이야기되지만, 아이를 기르는 궁극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실은 부모와 교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야만 할 필연적이고 더없이 감사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발도르프학교 연합 역량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학부모 활동가들이 지닌 대외 협력과 각종 행정 부분의 막강한 활동력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것이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로서 본인들의 수업과 맞먹을 만큼의 바탕이며, 그래서 그것이 실제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때로 수업의 본질이 되기도 하는 또다른 핵심이라는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마다 되물



각 학교에서 한 글자 씩 수공예로 만들어 주신 발도르프학교연합 슬로건

어야 합니다. 학교 운영의 주체가 교사이고 학부모라는 것, 손과 발이 똑 똑해지면서 머리가 손과 발로 인해 깨어난다는 것이 학교연합의 활동 속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발도르프학교 연합의 회원은 15개 학교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학교와 이미 안정적으로 보이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합을 향한 당장의 필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도르프 학교는 아름답게 빛어 완성된 예술품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학교는 변화 속에서 늘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만납니다. 개별 학교 울타리 안팎의 호흡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기대하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협력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퍼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구도 성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러하고, 더 현실적으로는 퍼주면 퍼줄수록 채워지는 많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어 그러합니다. 혹은 자신도 얼마나 받을 것이 많은 부족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러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연합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방법과 의미를 알 때, 이미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지속해서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냅니다. 늘 다른 역할로, 다른 속도로 비우고 채워지는 어른들을 통해 개별 학교가 돼 가고 수업이 이루어지며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몫이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틀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가 합법의 테두리가 조금씩 확대되는 시점에서 때와 장소를 가려 목소리를 내되 그 중심을 의

식적으로 잡는 것, 물질적인 변화의 이면을 꿰뚫어 큰 그림으로 한국의 교육, 한국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한국 발도르프학교 연합이 기꺼이 등에 짊어진 저희의 무게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들을 기꺼이 마주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하엘 데부스 선생님 축하인사

54

더 이상 각각의 학교가 제 자신만을 위해 혼자 일하지 않고, 또 각각의 학교가 교육작업의 본질적인 기관으로서 제 자신의 교사회를 갖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발도르프 학교들도 하나의 문화 영역과 언어 영역에서 정신적으로 하나의 '학교들의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Korea Association of Waldorf Schools

이렇게 정신적으로 서로가 함께 하고 속한다는 것이 이 땅 위에 하나의 거울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발도르프 학교들의 연합'을 만들어냄으로써 해내신 것처럼요. 55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출범을 준비하며

박미진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부의장 및
학부모회장)

안녕하세요. 학교연합 부의장이자 학부모회장 박미진입니다.

2020년 학교연합 준비위에 합류하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다 보니, '정말 고생스러운 과정을 모두의 손을 잡고 함께 도와가면서 결국엔 이뤄냈구나.' 하는 마음에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교사연합 기관지에서 2009년에 학교연합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연합부터 시작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학부모연합은 2015년에 학교연합을 꿈꾸며 전국의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각 연합이 꿈꾸던 학교연합을 이루기 위해 교사연합대표단과 학부모연합대표단이 두 번의 연석회의를 통해 학교연합준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5월에 학교연합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연수, 교육 활동 교류 등을 함께 하던 교사연합과 학교 운영, 재정, 규정 등의 정보를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던 학부모연합은 제각기 바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연합은 모든 활동에 교육의 주체자가 없으

니 갈피를 못 잡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대외활동에서 학교들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집단이 아니어서 발도르프 학교의 위상을 세우고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사연합도 학교연합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교육 활동을 꿈꾸고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교사연합과 학부모연합이 모두 꿈꾸던 학교연합은 어떤 모습일까요?

1년의 준비위 기간 동안 수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서로가 꿈꾸는 학교연합의 모습이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연합, 대외적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널리 알리고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산이 되어주는 연합, 발도르프 학교들 간의 교육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연합. 그런 모습을 꿈꾸며 준비위는 1년을 쉽없이 달려왔습니다.

1년간의 학교연합 준비과정에서 7~8시간의 준비위 회의 과정보다도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각

학교에 잘 공유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참으로 고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나 소외된 학교는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나는 학부모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다가도, 준비위 교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의 넘치는 모습을 보며, '그래, 학부모인 내가 열심히 도와야 학교가 잘 서게 되고 우리 아이도 더 좋은 여건에서 다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위의 고단한 과정과는 별개로 러브레터(학교연합 준비 과정 소식지)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격려해 주셨고, 그 덕에 지금까지도 이사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준비위 과정에서처럼 서로 소통하려는 의지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연합은 모두의 열망처럼 잘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세계적인 혁신교육의 이정표, “자유발도르프학교”



기미년 3월 1일 정오, 한반도에서 민중의 각성이 붓물처럼 터졌습니다. “대한독립만세!”라는 온 민족의 외침은 인류 평등과 자유를 향한 비폭력 저항의 실천이었고, 이는 임시정부 수립의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미독립만세운동에서 교육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이 거국적 움직임의 주동 계층에 처음부터 젊은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유 나라”를 꿈꾸며 미래 사회를 짚어지겠다는 주인의식을 발휘했습니다.

자주 독립의 의지, 민주주의, 평화를 좇던 그 학생들의 패기와 희생 정신이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까요? 21세기 미래 교육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현재의 교육제도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이들을 얼마나 구속하고 있나요? 영유아기부터 아동, 청소년기까지 대학 입시를 겨냥하여 이어지는 문제풀이식 주지주의 교육에 아이들은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하나요?

획일화된 우리교육의 문제를 두고 교육제도 다양한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2010년 지역별로 시작된 이른바 “혁신학교” 모델에 이어 2015년에는 교육부가 주도한 개정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어진 교과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운용하여 미래의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육현장은 어제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제도는 여전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은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시대에 호응하는 세계 교육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입시 경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 창의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다움’에 더하여 코로나 19 이후 시대가 요구하게 될 생태감수성을 포함한 삶의 대처능력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는 부분적인

개선을 통한 ‘탈바꿈’이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쇄신하는 “틀바꿈”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1950년대에 “홍익인간”으로 제시된 우리교육의 지향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습니다.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의 “세계화, 정보화, 창의적 한국인”이라는 지향점은 2007년 이후 이른바 “창의·인성교육”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는 주어진 변화에 순응하기보다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인재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열쇠는 온전히 교사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교육의 현장에서 교사 스스로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교육방법론을 개척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창의와 인성에 집중하는 교육을 정착시키려면 먼저 세계적인 선진 교육의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발도르프학교 현장이 미래형 교육의 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1919년(기미년) 독일 남부도시 슈투트가르트에서 첫 자유발도르프학교가 문을 연 뒤 여러 나라로 퍼져나간 발도르프학교들은 오늘날 전세계가 인정하는 창의 교육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출발점은 당시 일반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제시나 기존 교육의 문제를 보완하는 ‘개혁’의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교과서 없는 학교, 인지학적 인간학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교수방법론을 적용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와 각자의 학습 속도를 온전히 존중하는 현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도르프학교 교사는 “교육예술가”로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과 같은 교육방식으로 아동에게 내재된 소질과 능력을 깨워 줍니다. 나아가 모든 아동에게 씨앗으로 잠재된 “이상적인 본질”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독창성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자유발도르프학교와 그 교육론은 이미 100년의 세월 속에서 세계적인 창의교육 모델로 인정받아 여러 문화권에서 교육의 본연을 일깨우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우리의 미래 교육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믿어 추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목천에서 이정희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대표)

빛나는 2021, 여럿이 함께

64 내부강좌 이모저모

70 발도르프 교육예술 영상

72 서초아이발달센터 위탁 운영 소식

74 신간소개

77 후원안내

81 후원신청서

83 광고

2021년 하반기 내부 강좌 이모저모

발도르프 미술강사 자격 과정

2021년에는 미술강사 자격 과정이 꾸준히 개설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해당 과정을 통해 발도르프 교육학을 이해하고 “예술로서의 교육”을 알아갑니다. 또한 습식수채화, 밀랍 크레용, 밀랍 점토 등으로 진행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발도르프 음악강사 자격 과정

음악강사 자격 과정에서는 킨더라이어와 오음계 리코더를 중심으로 음악 예술 활동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의 몸, 마음,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악기인 킨더라이어와 오음계 리코더를 활용한 연주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집니다.



발도르프 학교 에포크 (주기 집중) 수업

발도르프 학교의 담임교사는 학급의 아이들과 특별한 인연으로 만납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지속할 인연을 함께 준비하며,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슈타이너가 제시한 교과 방법론을 배웁니다. 학년별 에포크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예술 활동을 해봅니다. 또한 교실에서 에포크 수업을 진행할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함께 고민을 풀어가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발도르프 수공예 교육

“놀이감 만들기” 강좌와 “수준별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시리즈” 강좌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여러분께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아이들의 열려있는 감각을 자극하고 성장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감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 형태를 갖춘 인형을 보면,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무한한 상상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 시문학 강독

2021 독일어 특별 코스로 마련된 “발도르프 교육을 위한 독일 시문학 강독” 수업은 시문학의 표현 기법을 통찰하고 독해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과정입니다. 더불어 발도르프 교육과 인지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슈타이너의 잠언도 함께 다룹니다.



자격증 과정

2015년 첫 예술 공예 강사 자격증 과정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 슈타이너 인지학센터에서는 총 8개의 민간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1. 국제 발도르프교육예술가(등급: 1급, 2급, 3급)

등록번호 2013-00410

발도르프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배우고, 국내외 발도르프 교육 기관의 현장 경험을 통해 강사의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다.

2.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등급: 기본, 강사)

등록번호 2014-4769

인지학에 바탕을 둔 심리학, 교육학, 인간학을 이해하여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환경적, 정서적 지지 기법을 습득한다. 과정 이수 후에는 부모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상담 기관이나 보육 시설 현장에서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가 및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3. 발도르프 예술 공예 강사(등급: 1급, 2급, 3급)

등록번호 2015-001426

발도르프 교육학의 이해와 인지학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로서의 교육”을 실현할 능력을 지향한다. 발도르프 공예(수공예, 목공예)와 예술(미술, 음악, 오이리트미, 연극) 분야의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학교, 방과 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기획, 지도할 수 있다.

4. 발도르프 미술강사(등급: 1급, 2급, 3급)

등록번호 2019-002907

미술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이다. 이수 후에는 발도르프 미술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현장(유아교육 기관, 학교, 방과 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지도하고 양성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발도르프 음악강사(등급: 1급, 2급, 3급)

등록번호 2020-004263

음악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도르프 음악 활용을 익힌다. 이수 후에는 발도르프 음악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유아교육 기관, 학교, 방과 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지도하고 기획할 수 있다.

6. 발도르프 이야기 전문가 (등급: 1급, 2급, 3급)

등록번호 2020-042704

발도르프 이야기 들려주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다양한 교육 현장(유아교육 기관, 학교, 방과 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나이에 맞는 이야기를 선별하여 아동을 지도하고, 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발도르프 손유희·라이겐 지도자(등급: 1급, 2급, 3급)

등록번호 2020-004705

발도르프 손유희·라이겐의 이론과 실재를 익혀서 연령대별 수업을 다양한 교육 현장(유아교육 기관, 학교, 방과 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지도하고, 나아가 이 분야의 전문 지도자로서 코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8. 피클러 산후 육아 지원 전문가(등급: 1급, 2급, 3급)

등록번호 2020-04706

피클러 영아 교육학을 토대로 하는 육아 지원 전문가로서 실무 능력을 쌓는다. 다양한 관련 현장(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교육 기관)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즐거운 미술 줌 수업 발도르프 미술강사 자격증 과정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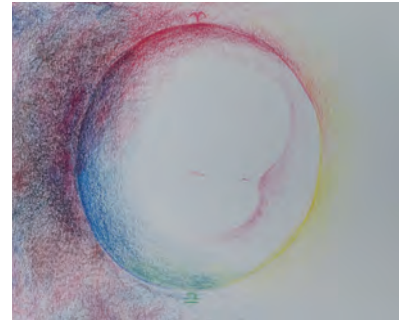
이길순
(환타지 자유어린이집 교사)

2000년대가 열릴 무렵 나는 발도르프 교육에 열정을 쏟게 되었다. 알고만 있기엔 싫었던 탓에, '작은 어린이집으로 실천하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지가 올해로 20여년이다. 내가 살고 있는 전북 남원에서 발도르프 교사 교육이 열리는 서울까지 다니기란 멀고 힘들었지만, '독일보다는 가깝지', '여수보다는 가깝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여행처럼 즐기면서 다녔다.

매 학기마다 참여하는 교사 교육은 여러 가지 예술 수업이 있어 좋았다. 그 중에 미술 수업은 늘 궁금한 과목이었다. 수채화나 선 그리기 등 맞보기만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맞게 그리는 것인지, 갈증으로 남는 그 무엇이 있었다. 처음 접하는 방법이라 어렵

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법적 자극이 날 깨워주는 것 같아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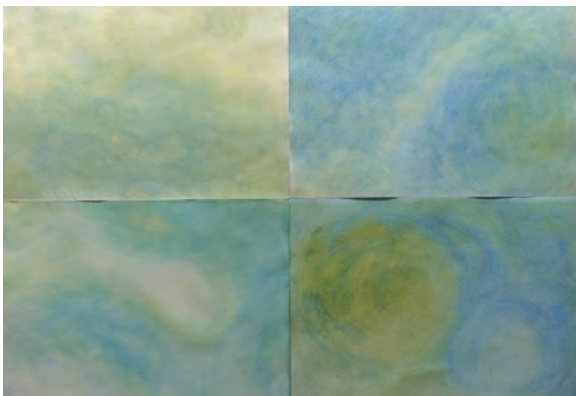
방학에는 충전을 위해 인지학과 예술, 3년간 열리는 수공예 과정을 들었는데, 작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필수 과정만 줌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에는 집에서도 미술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미술 3급 과정을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집의 책임자로서도, 또 나 개인으로서도 기차를 타고 서울을 다니는 것을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수공예 과정, 인지학과 특강들, 그리고 미술 수업 등 많은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열린 것이다. 사실 나이 들어가면



서 점점 열정이 줄어들며 서울이 멀게 느껴져 가는 중에, 줌 수업이 나를 새롭게 깨워 주고 있다.

발도르프 미술 수업에서 근간을 이루는 일반인간학 수업 또한 알차서 대만족이었다. 독일어가 아닌 우리 언어로,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살아 내신 손석심 선생님의 수업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선생님의 문장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3급 과정은 발도르프 미술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2급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는 3급 미술 수업과정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여러모로 애써주신 인지학센터 선생님들과 저 바닷물고기 밑에 있을 해저 통신 케이블에 감사를 전한다. 🐟



환급과정

2021년 나임 발도르프평생교육원은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현장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업주 위탁 환급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교육생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발도르프 교육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발도르프 유아교육 과정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아 발달의 새로운 이해와 실행을 위한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키운다. 특히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특징인 교육예술적 접근을 위해 손유희·라이젠, 라이어, 습식수채화 등으로 교사의 예술성을 함양한다.

• 발도르프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정 누리과정의 실천적 이해를 돕고,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끈다.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중심으로 일과를 구성하고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 발도르프 영아 교육과정

영아 중심, 놀이 중심의 영아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아 발달의 새로운 이해와 실행을 위한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키운다. 특히 발도르프 영아 교육의 특징인 존중과 협력의 돌봄 이론과 실재를 배우고, 교사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여 영아 보육의 질을 강화한다.

• 발도르프 현장 리듬 구성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기관의 리듬 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월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영유아를 새롭게 바라보는 교육자(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를 지향하여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성을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계절 노래와 손유희, 동화 등 매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발도르프 이야기와 동화 들려주기

'이야기 들려주기'는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 활동으로,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정서 발달에 따른 이야기와 동화를 선정할 수 있다. 고요함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실천적 방법론을 배운다.

• 발도르프 유아 음악

발도르프 유아 음악은 듣기 교육을 강조하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킨더라이어), 움직임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아우디오패드)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예술적 감각과 집중력을 키우는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한다.

• 발도르프 영유아 미술

발도르프 영유아 미술은 자연이 제공하는 빛과 색채에 대한 경험을 중시하며, 습식수채화, 밀랍 크레용 그리기, 밀랍 점토 놀이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예술적 감각과 심미감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키운다.

• 발도르프 손유희와 라이젠

자연, 언어, 움직임의 형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영유아기 감각을 깨우고, 과도한 자극과 기계음에 대한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발도르프 교육 방법론으로 영유아의 감각들을 통합적으로 키우는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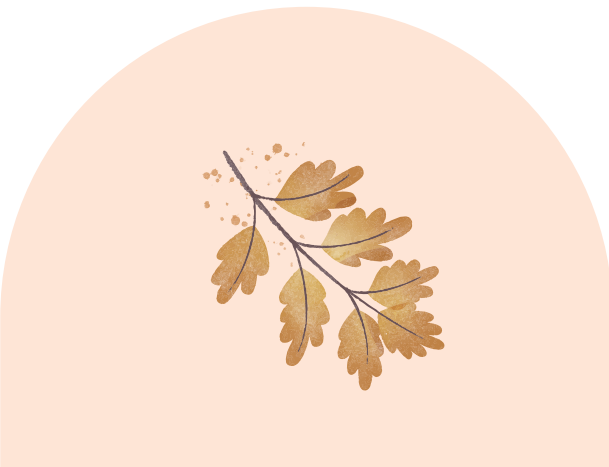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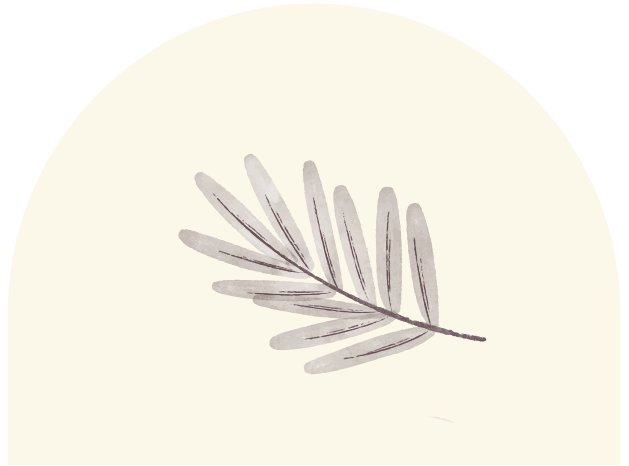
발도르프 유아교육 과정 - 수공예 강의



발도르프 유아·놀이 중심 교육 과정 - 표준보육과정 강의



발도르프 영아 교육 과정 - 습식수채화 그리기



발도르프 현장 리듬 구성 - 손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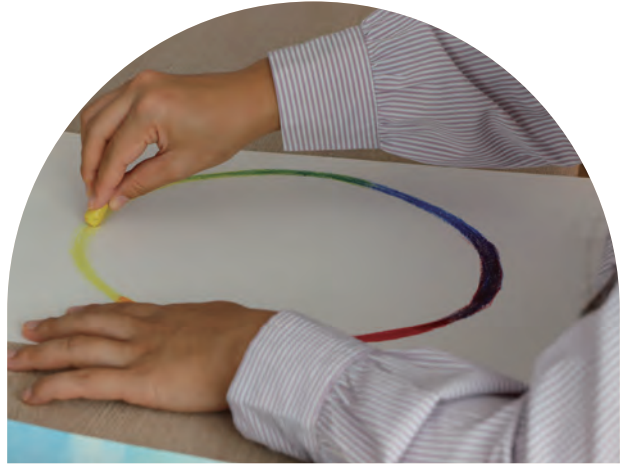
발도르프 이야기와 동화 들려주기 - 인형극



발도르프 이야기와 동화 들려주기 - 인형극



발도르프 유아 음악



발도르프 영유아 미술



발도르프 손유희와 라이겐

2021 발도르프 교육예술 영상 소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 교사와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는 2021년 상반기부터 발도르프 교육예술 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예술 영상은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기관회원으로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관회원 가입 및 혜택에 관한 사항은 인지학센터 홈페이지 (steinercenter.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공개한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관에서 선생님들끼리,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활용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도르프 손놀이

- 대상 연령: 만 4세 ~ 7세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은 바깥놀이를 하기 보다는 가정이나 어린이집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치유 손유희 및 놀이를 통해 애착 본능을 가진 아이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변화된 세상에 대한 아이들의 내적 상처를 사랑의 스킨십으로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발도르프 촉각각 손유희

- 대상 연령: 영유아

발도르프 손유희와 촉감각 손유희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어른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모방과 본보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작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부드러운 어른의 음성을 듣고 따뜻한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쟁이 요정 만들기

- 대상 연령: 영유아

- 준비물: 펠트 천, 양모솜, 바늘, 실, 가위, 수성 펜

발도르프 인형은 아이들에게 친근한 친구이자 아이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형 놀이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인형 놀이를 통해서 자신이 보아왔던 어른의 행동을 모방하여 창의적인 놀이로 옮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요정 만들기 재료 구입 문의: 070-7599-0750, 02-832-0523)



2021 상반기

계절 엽서 그리기

- 대상 연령: 부모님 대상
- 준비물: 사각 밀랍 크레용(빨강, 노랑, 진노랑, 초록, 파랑, 보라), 8절 머메이저지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리면서 계절이 지닌 원초적인 힘을 경험하며 자연의 지혜를 알아갑니다. 엽서 크기의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실내 장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 그림 엽서는 변화하는 계절과 절기의 분위기를 집 안 가득히 채워줍니다.



2021 상반기

별 접기

- 대상 연령: 만 5세 ~ 만 7세
- 준비물: 별종이 접기용 종이, 풀, 테이프

장식한 별종이에 빛이 닿으면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빛은 생명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요소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도 건강한 빛과 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별을 접어봅시다.



2021 하반기

똥망이 인형 만들기

- 대상 연령: 영유아
- 준비물: 양모 솜, 벨루어 천, 피부 천, 일반 실, 질긴 실, 바늘

엄마의 마음을 담아 만드는 똥망이 인형은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놀잇감입니다. 자녀가 똥망이 인형과 어떤 놀이를 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똥망이 인형은 자녀에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음과 창의성을 선사해 줍니다. (똥망이 인형 만들기 재료 구입 문의: 070-7599-0750, 02-832-0523)



2021 하반기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

- 대상 연령: 만 3세 ~ 5세(유아)
- 준비물: 종이, 밀랍 크레용, 풀

엄마가 배경을 그리고 아이는 움직이는 대상(등장인물)을 그려 움직이는 그림을 완성해가면서 예술이 지닌 치유적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색채의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면의 풍요와 활기를 경험하여, 다시 마음속에 희망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2021 하반기

발도르프 촉각각 손유희, 손유희 예술 활동

- 대상 연령: 만 1세 ~ 7세(영아 가능)

손유희를 통한 움직임 활동에서 어린아이들은 내면의 상을 표현하면서 신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신체 놀이는 리듬과 접촉을 통해 세상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고, '발로 땅을 딛고 선다'는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비로소 자아를 발견하게 합니다.



2021 하반기

발도르프 손유희

- 대상 연령: 만 1세 ~ 7세(초등 저학년까지)

많은 시간 동안 영상 또는 빠른 움직임을 체험하면서 감각과 느낌을 빼앗기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손유희를 통해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만남의 기쁨, 즐거움을 찾아주는 통로입니다.

서초 i(아이) 발달센터를 소개합니다

최진희
(서초 i(아이)발달센터 센터장)

사)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11월 개관한 서초 i(아이) 발달센터의 운영을 서초구로부터 위탁 받아, 향후 5년간 이 기관을 운영합니다.

서초 i(아이) 발달센터는 장애 및 장애 위험군(향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큰 집단) 영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초구 구립 시설입니다.

서초 i(아이) 발달센터의 설립 배경

현재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고 있지만,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아동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조산아, 저체중아의 출산이 신생아의 10%를 넘고, 심한 장애 아동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자폐 범주성 장애, 환경에 의한 장애 발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기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이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장애나 발달 문제가 아이에게 있다면 성인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정상 또는 전형적 발달의 잣대로 아이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재활 치료나 교육을 많이 해서 아이가 빨리 발달하게 도와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유아기 가족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과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뇌신경과학(neuro-science) 연구

는 아이 발달의 스케줄과 루트를 알려 줍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도 가족을 포함한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각 아이의 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연구들은 성인 주도의 재활 치료와 교육의 한계를 보여 주며, 가족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선진국들은 장애 및 장애 위험군의 영유아와 가족을 동시에 지원하는 조기개입 국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이 늦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가족 역량을 키우는 가족 중심 조기개입(family-centered early interventio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발달 촉진, 장애 예방 및 장애 심화 방지, 가족 역량 강화 외에도, 가족과 국가의 경비 지출 경감, 성인기의 사회 적응력 향

상 등의 조기개입 효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미국의 조기개입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 가족 중심 조기개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영유아와 가족에게 제공되었지만, 현재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아이와 가족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아이와 가족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개입 서비스를 국가 제도 안에서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가 정하는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의 한 형태로 서초구 조례에 따라 '서초 i(아이) 발달센터'를 개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초 i(아이) 발달센터의 주요 서비스

조기개입의 주요 사업은 장애, 발달 지연 및 장애 위험군 영유아를 일찍 발견하고, 아이 발달을 평가하고, 발달 촉진을 위한 서비스의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필요한

가족 지원과 부모 교육을 실행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서초구 가족 중심 조기개입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종합 원스톱 서비스

개별 영유아와 가족 상황에 맞게 평가·치료·교육·가족 지원을 비롯해서 다음 시기의 프로그램(어린이집, 특수학교 유치반 등)에 연관된 지원을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아이와 가족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로 운영됩니다.

2)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 서비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찾아다녀야 하는 치료실이 아니라 아이가 생활하는 가정 및 어린이집에서 치료·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 발달과 가족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가족 요구에 맞춰 비대면 영상 개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 경제적인 서비스

조기개입 서비스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가 팀(초영역팀)을 이루어 진행됩니다. 아이와 가족에게 필요한 내용을 팀에서 지원하지만, 실제로 방문하는 전문가(주 서비스 제공자)는 1~2명이 됩니

다. 가족은 많은 치료·교육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비용을 줄이고, 주 서비스 제공자와 지원팀을 활용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4) 지역사회 기관 간의 연계 서비스

의료기관, 어린이집, 행정기관(구청,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장애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모의 허락을 받아 의뢰 기관과 협력하여 아이 발달을 모니터링합니다. 진단이나 어린이집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로 센터에서 이런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 조기개입의 효과

가족 중심 조기개입 서비스가 목적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미국 정부의 조기개입 가족 설문을 이용한 부모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 자녀 발달 지원 실제, 부모 효능감, 가족 역량, 서비스 만족도입니다. 2015년 이후 매년 실시되었으며, 5점 만점에 평균 4.7점을 보입니

다.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 중심 조기개입의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아일수록 가족이 적절한 정보, 양육, 재활·교육에 대한 지원과 가족 지원 서비스가 더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내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었던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서초i(아이) 발달센터로 출범하면서 제도권으로 확대되고 더 체계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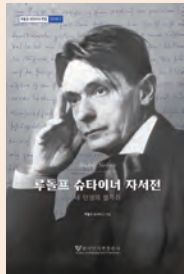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및 발도르프 교육서 소개



발도르프 치유교육

아동·청소년기의 현대병을 예방하는 교육
미하엘라 글뢰클러 지음 / 김훈태 옮김 / 1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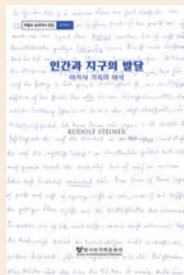
저자 글뢰클러 박사는 인간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교육 활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요소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생리학과 의학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슈타이너의 이해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또한 발도르프 교육에 술이 지닌 “치유의 힘”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요약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조력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에게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핵심적인 교육적 과제를 제시한다.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내 인생의 발자취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35,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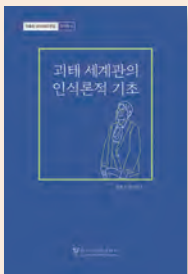
발도르프 교육학의 창시자이자 인지학의 설계자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육성으로 들려주는 깨우침의 기록이자 고백록



인간과 지구의 발달

아카샤 기록의 해석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25,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우주와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카샤”(우주 만물)에 새겨진 생성과 발달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인간과 지구의 발달을 설명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논집 《아카샤 기록으로부터》의 한국어 초역판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적 기초

특히 실러와의 관계를 탐작하며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박지용 옮김 / 1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유를 통해 “정신이 현실인 세계”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 슈타이너 인식론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 결론의 철학적 원천은 괴테 저작의 “내적인 확실성과 조화로운 완결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 철학과 신칸트 학파의 인식론적 이분법을 극복하고 정신 세계의 현실을 지향하는 인지학이 창설된다. 슈타이너 인식론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전집 제2권의 첫 한국어 완역판.



인지학 영혼달력

루돌프 슈타이너 명상시 52편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8,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루돌프 슈타이너가 봄에 접어드는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1년 52주, 52개의 잠언을 모아 엮은 책. 계절의 흐름에 따른 우주의 순환과 자기 내면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의미 가득한 연결을 생생한 이미지로 그려냈다.



철학·우주론·종교

인지학에서 바라본 세 영역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13,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철학·우주론·종교 영역의 인식론을 올바른 개혁으로 이끌 루돌프 슈타이너의 정신과학 선언이자 인지학적 인식론 체계의 본격 해설서



교사 루돌프 슈타이너를 만나다

베를린 노동자학교 재직 시절 1899~1904
요한나 뮈케, 알빈 알프레트 루돌프 지음 / 여상훈 옮김 / 1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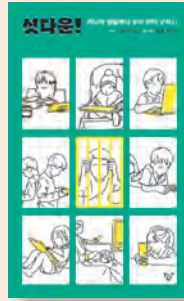
“슈타이너 박사는 학생들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에든 지극히 따뜻한 관심을 보였으며, 학생들의 고충과 희망에 늘 함께했다. ...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한 그의 선함은 햇빛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밝혀 주었다.” - 요한나 뮈케



발도르프 아동교육

발달 단계의 특성에 기초한 교육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이정희 옮김 / 12,000원 / 발행 씽크스마트

루돌프 슈타이너는 영유아기를 포함하여 유년기, 사춘기를 지나 청소년기의 발달에 이르기까지 양육과 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동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발도르프 교육 원리는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아이의 내면 발달에 초점을 두면서 사람의 본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동반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이유대로 "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셋다운

미디어 정글에서 우리 아이 구하기
독일 미디어 진단 지음 / 여상훈, 이정희 옮김 / 1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자 저주가 되었다. 이 책은 발달 단계에 따라 미디어가 아이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사례와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 그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디어 교육의 기초에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법률적 조언에 이르는 지침을 모두 담았다. 교육자와 부모의 필독서.



발도르프 교육예술

인간의 본성이 중심인 교육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17,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런던에서 발도르프 학교를 모델로 하는 초등학교 설립이 결정되었을 때 그곳 초대 교사진을 위해 이루어진 강연을 기록한 책이다. 슈타이너 박사가 생전에 제공한 마지막 교육학 강좌로 주목 받는 이 자료를 통해 인간 본성을 중시한 발도르프 교육예술의 정수와 여러 교과목의 혁신적 교수방법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발도르프 유아예술

조바심·서두름을 치유하는 거꾸로 육아
이정희 지음 / 14,000원 / 발행 씽크스마트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43가지 발도르프 유아 이야기. 인지 위주의 학습을 멀리하며 자유로운 놀이로 아이 교유의 본성을 이끌어 내는 한편, 건강한 신체 발달을 이루고 자신의 의지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발도르프 유아 교육법을 제시한다.



발도르프 성교육

아동발달을 토대로 한 성교육 지침
마티아스 바이스 외 지음 / 이정희, 여상훈 옮김 / 12,000원 / 발행 씽크스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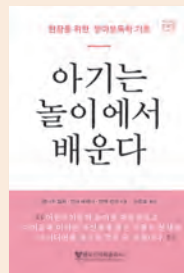
발도르프 교육학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심리상담 치료사가 교육적 관점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성의 발달에 어떻게 동행하고 성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안내한다.



유아 그림의 수수께끼

성장의 발자국 읽기
미하엘라 슈트라우스 지음 / 여상훈 옮김 / 2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의 고전, 영유아기 그림 언어에 담긴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열쇠



아기는 놀이에서 배운다

현장을 위한 영아보육학 기초
모니카 알뤼 외 지음 / 이정희 옮김 / 1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이 책은 영아반의 이상적인 공간 구성, 자유놀이 발달에 적합한 월령별 놀잇감, 교사의 동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한다.

2021 ~ 22년 출간 예정 도서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보이는 노래인
오리트리미·음악오리트리미 코스

일반인간학

정신과학적 인간 이해의 교육적 실제
-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신비적 사실로서의 그리스도교

비밀학 개요

괴테의 세계관

색채의 본질

〈발도르프 교육서〉

아우디오패디 - 듣기 예술
라인힐트 브라스 지음 / 이수영 옮김

발도르프 유아교육현장

발도르프 영아교육 지침서

발도르프 학교 수공예 수업의
대바늘 뜨기와 코비늘 뜨기
- 수공예의 형성과 발견

〈피클러 영아보육학 시리즈〉

아기와 대화하기

나, 너, 그리고 우리

자유놀이의 시작

영유아를 위한 준비된 환경

관찰하고 이해하고 동행하기

기저귀와 작별하기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2016년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발도르프 교육교재와 슈타이너전집 출간을 위해서 한국인지학 출판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질적 향상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슈타이너 타계 10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방대한 전집(GA) 354권 중에서 우리에게 긴요한 자료부터 번역, 출판하자는 뜻이 모여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

젝트의 실현을 위해 전집출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출판기금 마련과 자료 선정을 돕고 출판물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집출간위원회는 발도르프 교육의 확산과 인지학 정신문화 운동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역과 출판 계획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31-710055 인지학출판사
*1구좌 100,000원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2021년 11월 현재)

D.도로 H자이델 M레버 P랑 강아미 강애란 강자경
고도겸 구태영 권금례 권영완 권희려 김관우 김계연
김꽃님 김남희 김미서 김백기 김세한 김송미 김수남
김영미 김용인 김윤희 김정기 김정임 김철기 김태영
김태희 김현주 김훈태 모명숙 문지숙 문지은 박계옥
박성금 박애란 박용옥 박춘신 배건호 백선미 석진미
선우숙 손석심 손예녹 송광수 송미령 송윤경 신동춘
신미현 신영주 신은주 안미순 안소희 안지윤 안지환
여상훈 오경희 오운선 오해년 오화남 윤인영 윤정민
윤정원 이강두 이기림 이미영 이미정 이상윤 이상희
이선아 이소영 이소윤 이연희 이영숙 이윤옥 이은희
이정자 이정화 이정희 이지영 이진우 이창미 임지영
장구지 장서원 장은심 정다운 정다운 정재연 진채희
천경자 최계연 최분희 최중희 최한희 하건호 하주현
하태훈 한남희 한미경 한은숙 함형진 홍귀자 홍명애
홍울문 황인화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주)W네트웍스(벨레다)
(주)삼화알미늄
(주)아이보트 투어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강서햇빛발도르프킨더가르텐
길벗사과농장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도서출판 씽크스마트
동그라미발도르프어린이집
동원육영재단
마리아의종 어린이집
미래숲유치원
발도르프프유아교육동문회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교육부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서울발도르프연구회
슈타이너사상연구소
시립햇빛유치원
어린이박물관카페 '도담도담'
영유아교육연대
영천금호어린이집
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이화영유아발달연구센터
이화유치원
인지학센터치유교육소모임
잇다자유학교
파팔라코리아
한울어린이집
향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홍천밀크퀵살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안내(8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이름이 누락된 경우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응원



든든 버팀목

후원회원 **1000명** 을 모십니다

2019 기관회원

(시흥)초록나무어린이집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강남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
 고양이뜰 어린이집
 구림꿈마루어린이집
 구림울림픽파크꿈별어린이집
 구림크니크니어린이집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꿈꾸는어린이집
 낙원어린이집
 또래숲속학교
 바람아래발도르프킨더가르텐
 반석어린이집
 별빛어린이집
 부천동그라미어린이집 대표
 빛의아이들킨더가르텐
 사과나무어린이집
 서마어린이집
 서울빛들발도르프학교
 서울정릉발도르프학교
 서초구립아이숲어린이집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소사주공어린이집
 쉼마숲선교원
 슈타이너사상연구소
 시립고양어린이집
 신정4동어린이집
 아이조아 어린이집
 오금숲어린이집
 우림별빛어린이집
 자연발도르프유치원
 자연발도르프유치원
 자연어린이집
 작은동지어린이집

큰다우리발도르프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향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해가람어린이집
 행복한발도르프유치원
 화랑어린이집

2020년 기관회원

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
 구림사과꽃어린이집
 금빛어린이집
 금호어린이집
 꿈꾸는어린이집(용산)
 낙원어린이집
 도담어린이집
 동그라미발도르프어린이집
 또래숲속학교
 바람아래발도르프어린이집
 발도르프 하늘숲 선교원
 별꽃씨어린이집
 별빛어린이집
 서머힐어린이집
 서울빛들발도르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신정4동 어린이집
 영천 미소지움어린이집
 오금숲어린이집
 자람어린이집
 자연발도르프유치원
 자연어린이집(용산)
 청소년플러스 클럽
 크니크니어린이집

2021 기관회원

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
 경희의료원직장어린이집
 구림꿈마루어린이집

구림큰솔어린이집
 금호어린이집(경북 영천)
 꽃가람발도르프어린이집
 꿈꾸는어린이집
 꿈별어린이집
 나무와새어린이집
 낙원어린이집
 도담어린이집
 두빛나래터발도르프 어린이집
 또래숲속학교
 (수원)또래숲속발도르프킨더교육원
 미소지움어린이집(경북 영천)
 바람아래발도르프어린이집
 반석어린이집
 별꽃씨어린이집
 춘천별동지어린이집
 별빛어린이집
 사과나무어린이집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서마어린이집
 서초구립아이숲어린이집
 소사주공어린이집
 소화발도르프어린이집
 송파꿈꾸는어린이집
 수잔나어린이집
 순어린이집(제주)
 숲속나무어린이집
 숲속아이어린이집
 숲에노닐다어린이집
 시립고양어린이집
 시립장현루벤시아2차어린이집
 시립햇빛어린이집
 아가나무어린이집
 아이마을등구나무어린이집
 여월주공어린이집
 영아아이조아어린이집

오금숲어린이집
 옥천어린이집
 운유어린이집
 우방아이유셀어린이집
 원주별동지어린이집
 은혜어린이집
 이화유치원
 인천발도르프킨더가르텐 빛의 아이들
 자람어린이집
 자연발도르프유치원
 자연어린이집(용산)
 자유산새어린이집
 작은동지어린이집
 지구촌어린이집
 초록새나무어린이집
 춘천별숲어린이집
 크니크니어린이집
 큰다우리발도르프어린이집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풍덩이감성놀이터
 하늘구멍어린이집
 하늘숲선교원
 한빛어린이집
 향동발도르프어린이집
 향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햇빛자연발도르프어린이집
 햇살나무어린이집
 햇살아래보듬이나눔어린이집
 행복한발도르프어린이집
 화랑어린이집
 한타지자유어린이집
 후평우미어린이집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
 파스텔 어린이집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2000년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기관연회비, 든든 버팀목 후원금(CMS)과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발도르프 교육 운동에 뜻을 함께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CMS 후원을 전화(02-832-0523)와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9-321956 (사)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센터

나눔을 실천해 주신 버팀목 후원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정기후원

KWACK K 강성수 강아미 강애란 강윤숙 강자경 강정화 강환욱
강효은 고미숙 고민아 고혜경 곽시내 곽해경 구나래 구태영 권수자
권연주 권영안 권현정 권희정 길종각 김갑식 김경주 김경화 김계연
김광선 김근화 김길섭 김나현 김남희 김다혜 김덕윤 김도형 김동욱
김동중 김동현 김동현 김미미 김미서 김미정 김미현 김민영 김병철
김보라 김보민 김상미 김선아 김선주 김선집 김성숙 김세정 김세환
김세훈 김송미 김숙경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인 김용원 김윤미
김윤희 김윤희 김은숙 김은실 김은정 김은희 김일선 김자경 김정순
김정연 김정희 김종욱 김종현 김주선 김주연 김지미 김지숙 김지영
김지은 김찬숙 김충환 김태욱 김태영(쌍크스마트) 김해련 김현경
김현자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김혜전 김희연 김희원 김희정 김희준
남가희 남미영 남영순 남옥인 남주현 노재민 노지원 노택균
도서출판푸른씨앗 동지영 라경혜 류명숙 류미리 문소영 문지윤
민영숙 박동진 박미숙 박복실 박상연 박선영 박성숙 박세정 박수경
박승이 박용욱 박은영 박은혜 박재용 박정열 박정은 박지원 박준성
박지원 박필용 박향연 박현정 박현철 박혜경 박혜영 백미경 백미희
백선미 백선미 백수명 배숙경 백승미 백승은 백승주 서경희 서미정
서승미 서지희 석은녕 선우숙 설하영 손명희 손민정 손병숙 손석심
손옥진 송경수 송광수 송윤경 송정은 송지윤 송한울 신미현 신순영
신승혜 신영주 신인자 신정아 신정아 신지영 신현선 신태진 심기성
안만순 안명희 안봉균 안소희 안지은 안형주 안희정 양경미 양영주
양현정 이상훈 연태순 오경희 오금희 오미진 오미희 오유진 오윤선
오지운 오해년 오화남 용소연 우수현 우영희 유미진 유병현 유상영
유선영 유주연 윤서영 윤양순 윤영아 윤인영 윤정민 윤정원 윤진숙
윤창환 윤채원 윤효원 은혜어린이집 이강두 이건희 이경 이경옥
이남순 이동화 이대형 이명화 이미구 이미숙 이미영 이미화 이민아

이민영 이보라 이서경 이선주 이소영 이소윤 이소현 이수은 이신자
이연옥 이연희 이연희 이영선 이영숙 이예민 이유선 이윤옥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옥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혜 이재련 이재희
이정란 이정미 이정숙 이정자 이정화 이정희 이주영 이준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진우 이창미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혜련 이혜승
이혜연 이혜정 이화연 이환웅 임기홍 임명숙 임수진 임숙자 임승미
임영란 임영주 임우선 임윤희 임은정 임은진 임은화 임정미 임지연
임지영 임채나 장구지 장서원 장선경 장세경 장영심 장은심 전귀옥
전난영 전민선 전영희 전정현 전혜정 정경임 정고은 정나란 정나래
정나래 정다운 정명화 정선 정수정 정수희 정윤미 정은경 정은미
정은미 정재연 정재영 정지민 정지영 정향미 정현남 조미연 조미영
조미형 조용미 조일석 조정하 조지현 조혜선 조혜영 지현애 차일순
천경자 최계연 최공주 최로사 최미나 최민호 최분희 최석원 최선호
최성희 최수진 최순영 최야름 최영서 최영순 최유미 최유진 최은애
최은영 최인숙 최정진 최주옥 최진형 최진희 최한희 최향락 최현성
최혜경 편명신 하주현 하태훈 한고숙 한기옥 한성호 한요엘 한은숙
한재용 한혜은 허설향 허윤정 허정희 허지혜 허혜무 현상두 현진성
홍경희 홍귀자 홍명애 홍유영 홍윤문 홍은정 황선호 황영순 황인화
황지연

2021년 코로나 특별후원

강아미 김계연 김송미 김훈태 마가레타 레버 미하엘 레버
민은홍 박부자 부산인지학연구회 부산자유발도르프 배건호 송광수
슈타이너사상연구소 신영주 여상훈 오경희 이윤옥 이재희 이정자
이정희 이진우 이창미하이오데커한남희 한미경 한은숙

* 이름이 누락된 경우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든든버팀목 후원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확산을 위해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 센터의 든든버팀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든든버팀목 후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은 인지학센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펼쳐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약속한 날짜에 해당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월 1만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후원자로 초대합니다.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는 2025년까지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저서와 강연록 등으로 이루어진 전집을 우리글로 번역·출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은 100,000원을 1구좌로 하는 일시후원입니다. 전집 번역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후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1구좌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금은 출판 및 번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한 번의 후원이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한국에 인지학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기 위한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CMS 후원, 출판 후원 모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학센터에 후원금 영수증을 신청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사진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팩스 02-832-0526 | 이메일 anthroposophy@hanmail.net

카카오톡 steinercenter | 문자 010-5209-0532(사진 전송 가능)

문의 인지학센터 02-832-0523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후원 신청서

후원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후원 종류 및 후원정보

* 든든 버팀목 후원과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체크 (중복 가능)		상세 사항						
□	든든 버팀목 후원	정기 후원금(택 1)	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출금예정(택 1)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1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0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 후원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사람인 경우 반드시 예금주 동의란을 작성해 주세요. (신한은행 140-009-321956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	후원금(택 1)	<input type="checkbox"/> 1구좌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2구좌 200,000원	<input type="checkbox"/> 자율구좌		원	
		후원 예정일		년	월	일		
		입금자명						
		* 후원금을 직접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100 031 710055 인지학출판사)						

본인은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운동에 동참하고자 위와 같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동의 :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작성해 주세요. 예금주는
출금통장의 거래 날인이나 서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후원자님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가. 후원금영수증 발급, 후원자서비스 (소식지 발송 등) 제공의 목적 나. CMS 출금 등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자택/직장), 이메일, 출금일, 후원금액, 은행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수집방법	후원신청서, 후원가입 웹사이트, 전화 등 이에 준하는 방식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본인 요청 시 삭제, 단, 후원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 정보와 후원금 결제정보를 보관

■ 개인정보 취급 위탁 안내(든든버팀목 후원회원 해당)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는자(수탁자)	엔컴소프트(주)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내용	후원금 출금 및 관리 등의 후원 처리 이행

■ 문자(SMS)발송 동의

- 1. 자동이체 동의 및 처리결과 안내(휴대폰 문자전송)송부.
*아래의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 및 서명하셔야 기금이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후원금영수증 발급과 후원자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였으며,
위 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뜨라네 발도르프

아이에게 주는 놀잇감은 단순한 형태이어야 하고
가짜가 아닌 진짜의 놀잇감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품목

- 발도르프 인형
- 발도르프 음악용품
- 발도르프 놀잇감
- 피클러 움직임교구
- 발도르프 미술용품
- 양모 놀잇감

발도르프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놀잇감의 완제품과 재료, 교구 구매 가능합니다.
물품전시장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6층

상담 문의 전화 010-6277-3732 (대표 한은숙) | 이메일 smallhan60@hanmail.net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물질 속에서 정신을,
지상의 삶 속에서
정신적 존재를 돌보는 일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1861-1925)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Center for Anthroposophy in Korea

040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0 (신수동) 우리빌딩 2층 6층
T. 02-832-0523 | F. 02-832-0526 | anthroposophy@hanmail.net
인쇄비 3,000원